

5-15-2014

공동체 회복을 통한 건강한 교회 세우기 : 영락교회 평신도 상담대  
학을 중심으로

Jae Hwa Jung 정재화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

### Recommended Citation

정재화, "공동체 회복을 통한 건강한 교회 세우기: 영락교회 평신도 상담대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플러신학대학원, 2014.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BUILDING A HEALTHY CHURCH THROUGH RECOVERY OF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AY COUNSELING ACADEMY OF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JAE HWA 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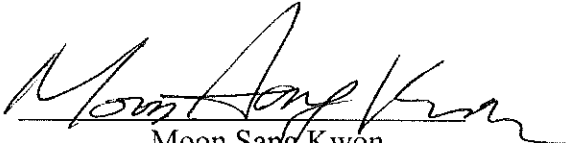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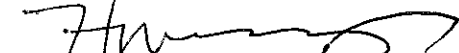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May 15, 2014

**BUILDING A HEALTHY CHURCH THROUGH  
RECOVERY OF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AY COUNSELING ACADEMY OF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AE HWA JUNG**

MAY 2014

공동체 회복을 통한 건강한 교회 세우기  
- 영락교회 평신도 상담대학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문 상 교수

정 재 화

2014년 5월

## Abstract

Building a Healthy Church through Recovery of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ay Counseling Academy of Younknak Presbyterian Church

Jae Hwa Jung

Doctor of Ministry

201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present a lay counseling educational program designed to help church members grow healthy spiritually in Christ with the goal of building up a healthy church community.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explores biblical concepts of the church as a healthy Christian community, focusing especially on the book of Acts and the Pauline epistles. Chapter 3, after dealing with personal,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issues that contemporary Koreans have in their daily lives, examines various challenges the Korean church has been facing. It then determines what is needed for Korean churches to be healthier Christian communities. Chapter 4 argues that a lay counseling educational program could be one method to build up a healthy Christian community. After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seling education and the church, this chapter shows how the counseling educational program influences individual members, families of the church, as well as the church as a whole. This chapter then discusses basic principles of the lay counseling educational program.

Chapter 5 introduces the Younknak Presbyterian Church's lay counseling educational program, called the Lay Counseling Academy, and scrutinizes its goals, curriculum, implementation, and so forth. After analyzing a survey of members of

the Younknak Presbyterian Church who attended the Lay Counseling Academy, this chapter emphasizes the need for lay counseling education programs in local churches and suggests a direction to improve the Lay Counseling Academy of the Younknak Presbyterian Church.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 감사의 글

먼저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고 사역자로 삼아 주의 일을 하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풀러신학교 박사과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권문상 박사님과 풀러신학교 김태석 목사님,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논문은 제가 영락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마칠 즈음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김포중앙교회에서 담임청빙을 받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감히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아들을 위해 피곤한 노구를 이끌고 차디찬 교회바닥에서 철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 이연순 권사님께 감사드리며 사위의 목회사역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김병순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옆에서 말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 김은실 사모와 삶의 희망이자 보배들인 사랑하는 자녀들, 세계최고미녀 혜원, 나의 희망 운우, 예쁜 공주 헤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이 연구로 인해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고 치유와 돌봄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2014년 5월 정재화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동기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	2
제 3 절 연구의 방법론 .....	3
제 4 절 연구의 개요 .....	3
제 2 장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해 .....	5
제 1 절 성경에 나타난 건강한 교회 .....	5
1. 사도행전에서 의 건강한 교회 .....	5
2. 바울서신에서의 건강한 교회 .....	9
제 2 절 살아있는 공동체 .....	14
1. 공동체의 특징 .....	15
가. 공동체의 정의 .....	15
나. 공동체의 의미 .....	16
다. 공동체의 필요성 .....	19
라. 공동체의 특성 .....	21
2. 성도들의 신뢰가 있는 교회 .....	22
3.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	23
4. 공통의 비전이 있는 교회 .....	25
5.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 .....	27
제 3 절 결론 .....	31
제 3 장 한국 교회 안에서의 문제 .....	32
제 1 절 개인주의적 차원 .....	32
1. 수치심과 적대감 .....	33



2. 외로움과 공허함 .....	34
3. 열등의식 .....	36
4. 조급성과 극단성 .....	38
5. 성공주의 .....	40
제 2 절 사회 문화적 카테고리 .....	42
1. 개인주의 .....	42
2. 윤리 의식의 부재 .....	44
3. 무속적 세계관 .....	45
4. 유교적 영향 .....	48
5. 지정학적 상황 .....	51
제 3 절 교회적 현실 .....	52
1. 교회의 세속화 .....	53
2. 치유사역의 부재 .....	55
3. 성장 중심의 사고 .....	56
4. 공동체성의 상실 .....	58
5. 교회와 기독교인의 부도덕성 .....	59
제 4 절 결론 .....	61
제 4 장 건강한 교회를 위한 평신도 상담교육 .....	62
제 1 절 평신도 상담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	62
1. 상담교육의 의미 .....	63
2. 상담교육의 필요성 .....	65
제 2 절 평신도 상담교육의 기본원리 .....	67
1. 상담교육의 목적 .....	68
가.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다 .....	68
나. 문제의 근원에 집중하라 .....	70
다. 건강한 상담사 양성 .....	71
2. 상담교육의 원칙 .....	73

3. 교회에서의 상담사역 .....	76
가. 성경적 원리에 집중하라 .....	76
나. 교인들의 요청에 민감하라 .....	78
다. 소그룹으로 실시하라 .....	79
제 3 절 상담교육과 교회공동체와의 관계 .....	81
1. 상담교육을 통한 개인회복 .....	81
2. 상담교육을 통한 가정회복 .....	84
3. 상담교육을 통한 공동체회복 .....	85
제 4 절 결론 .....	88
제 5 장 영락교회 상담대학 운영의 실제 및 평가 .....	90
제 1 절 평신도 상담대학의 운영 .....	90
1. 상담대학의 목표 .....	91
가. 개인적 목표 .....	91
나. 교회공동체적 목표 .....	91
2. 상담대학의 개요 .....	92
가. 참가대상 .....	92
나. 교육기간 .....	92
다. 조직구성 .....	92
라. 교육내용 .....	93
3. 상담대학의 운영 .....	93
가. 홍보 및 인원모집 .....	94
나. 강사선정 .....	94
다. 진행과정 .....	94
라. 조별모임 .....	95
마. 상담실습 .....	95
제 2 절 상담대학의 교재 .....	95
1. 교재의 필요성 .....	95

2. 교재구성의 원리 .....	96
가. 실용성 .....	96
나. 전문성 .....	96
3. 교재의 주제와 평가 .....	96
가. 교재의 주제 .....	97
나. 교재에 대한 평가 .....	97
제 3 절 공동체 회복을 위한 평신도 상담교육에 대한 평가 .....	97
1. 설문조사 .....	97
가. 설문 대상 및 도구 .....	98
나. 설문조사 방법 및 범위 .....	98
다. 설문조사 기간 .....	98
라. 설문자료 처리 방법 및 제한 .....	98
2. 설문결과 분석 및 정리 .....	98
가. 일반사항 .....	99
나. 개인의 신앙 성장과 상담에 대한 이해 .....	100
다. 교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 .....	103
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제안 .....	109
3. 설문결과에 따른 제안 .....	111
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가르치라 .....	111
나. 교인들의 필요에 민감하라 .....	112
다. 상담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라 .....	113
제 4 절 결론 .....	114
제 6 장 결론 .....	116
부록 .....	119
참고 문헌 .....	123

Vita ..... 128

## 표 목 차

<표 1> 자아 정체성 발견 여부 .....	100
<표 2> 신앙적 문제와 내면적 갈등의 원인과 관련 여부 .....	101
<표 3> 신앙의 성장과 회복에 도움 .....	101
<표 4> 가족을 이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	102
<표 5>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상담 관련 전문적인 지식 습득 여부 .....	103
<표 6> 공동체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조직이나 관계 .....	103
<표 7> 건강한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	105
<표 8>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평신도 상담과 교육의 필요성 .....	105
<표 9>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 .....	106
<표 10>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 .....	107
<표 11> 수료 후 교회에서 어떤 종류의 사역과 봉사를 하고 싶은가 .....	108
<표 12>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도움 .....	108
<표 13> 상담대학 강의 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	109
<표 14> 교육 과정 중 가장 관심과 흥미가 있었던 분야 .....	109
<표 15> 교육기간과 환경, 강사진과 교육인원에 대한 적절성 .....	110
<표 16> 상담대학 교육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	110

## 그림 목차

<그림 1> 초대교회 정기모임의 세 가지 요소 .....	6
<그림 2> 기독교 상담의 자원 .....	74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 동기

인간은 공동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유익한 면도 있지만 때로는 관계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다.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삶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회도 공동체로 존재하기에 성도들에게도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다. 건강한 공동체는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숨기려고 한다.

포장문화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집을 나서 는 순간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런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진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누군가 상처로 인해 속은 썩어가는 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봉대만 감고 살아가는 것과 똑 같은 모습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보면 중국에 가서 어떤 결정적인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문제로 인해 갈등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개인과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또 공동체라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하게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 그로인해 개인을 피폐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공동체의 삶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그 구성원인 교인 한 사

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 세워지는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 위기를 겪고 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공동체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바로 세워질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나아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온 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나라에 이르기까지 긴 영적 여정의 목적지에 함께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라는 신앙공동체를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들은 서로를 향해 영적 여정에 있어서 '동반자 의식'을 품어야 한다.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있어서 동반자 의식을 가질 때 신앙생활에 활력과 생기가 있고, 나아가 온전한 '가족으로서의 교회상' 이 확립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공동체 속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엇보다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서로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과 세계관 등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만을 고집할 경우 공동체 안에는 갈등과 분열로 인한 상처와 아픔만 있게 되기 마련이다. 교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체로서 교회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과 이미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연구해야한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영락교회에서 수년 동안 사역 하면서 공동체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와 또 공동체에서 겪은 일들로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하고 그로인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 먼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성도들이 그들의 삶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영락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신도 상담대학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신도 상담대학은 우리 시대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한다.

### 제 3 절 연구의 방법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은 먼저 문헌조사 방법론을 사용하여 성경, 특히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통해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고 살아있는 공동체에 대한 특징들을 고찰한다. 또한 한국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갈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영락교회에서 실시하는 평신도 상담교육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신도 상담대학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신도 상담대학 프로그램이 자신과 가정과 교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제 4 절 연구의 개요

먼저 1장은 본 연구의 서론으로 연구의 동기와 목적, 방법과 개요를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에 있음을 밝힌다.

2장에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살펴본다. 특히 이 장에서는 교회의 시작인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통해 건강한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고찰해본다.

3장에서는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삶속에서 겪고 있는 개인적, 사회·문화적, 교회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본다.

4장에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평신도 상담대학을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먼저 상담교육과 교회공동체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상담교육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회복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평신도 상담대학의 의미와 필요성, 상담대학의 기본 원리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5장에서는 영락교회에서 실시하는 평신도 상담대학 사역을 살펴본다. 영락교회 평신도 상담대학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개요, 운영과 교재에 대해서 살펴본다. 더욱이 여기서도 실제로 상담대학에 참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볼 것이다. 설문조사의 방법과 내용,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사역을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 교회에서 평신도 상담대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평신도 상담대학을 개설하여 성도들이 관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들을 이해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마지막 6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결론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

## 제 2 장

###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해

본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기반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서신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의 특징과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 제 1 절 성경에 나타난 건강한 교회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사도행전은 교회 공동체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기 원했던 교회 공동체의 참모습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기반을 말해주고 있는 바울서신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 1. 사도행전에서의 건강한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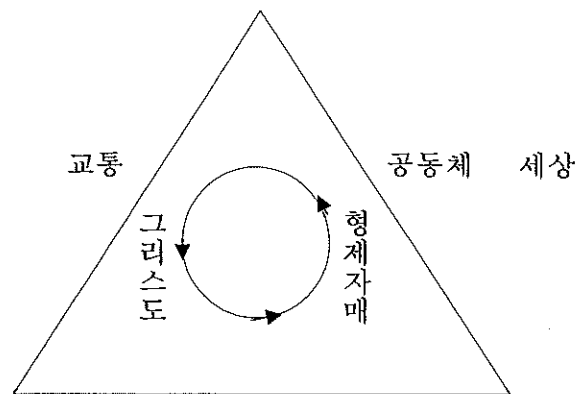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탄생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고 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

어 그들이 앓은 온 집에 가득하며”(행 2:1-2).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탄생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내에 일어난 일들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초대교회 정기모임의 세 가지 요소



위임령<sup>1)</sup>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 서로간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축전하기 위해 동등하고도 균형 잡힌 헌신을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세 변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삼각형처럼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광범위한 헌신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본질은 관계이며, 이 세 유형의 관계가 너무나 밀접해서 서로를 구별하는 것이 힘들 정도다.<sup>2)</sup>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

1)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부 출판부, 2009), 147.

2) Ibid.

로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4-47).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환경과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으나 하나님의 주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삶과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였으며, 성령을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과정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평등과 일체감으로 하나 되었다.

다양한 계층과 상이한 환경 속에 있던 그들은 공동식탁에 모여 자신들의 소유와 재산을 공유하고 영적인 체험을 함께 나누었다. 구성원들은 개인의 행복과 구원에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고 공동체의 선과 구원을 추구하였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공동체의 모든 권위를 두었다.<sup>3)</sup>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다. 사랑은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믿는 자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에 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하고, 친절하며, 겸손하고, 이해심과 아량, 그리고 관대한 마음과 낙관적인 가치관을 갖게 한다.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할 때 긍휼과 자비,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게 되는 것이다.<sup>4)</sup>

초대교회 공동체는 인생의 순례 길을 걸어가면서 겪었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을 함께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3) 이숙중,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420-421.

4) 권문상, *부흥 여제인 1907* (성남: 도서출판 브니엘, 2006), 223-224.

이 모여서 받은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sup>5)</sup>

세 번째 특징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소통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동체 정신을 본받아서 비록 혈연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가족적공동체를 이루었다. 만약 믿는 자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생활할 때 마음이 나누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는가? 갈등과 분열로 인해 소멸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공동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시 대외적으로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통했기 때문이었다.

네 번째 특징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였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라고 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 놓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생각하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 섬겼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요 13:4-5). 그리고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4-15) 라고 말씀하셨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였다.

다섯 번째 특징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의 공동체였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알 수 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나 여자, 부자나 가

5) 김상현, *전도 중심교회* (서울: 프리셋트, 2006), 265.

난한 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평등을 추구하는 공동체였다. 이것은 공동체가 머리되신 주님 안에서 동질적인 지체의식으로 위계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평등한 관계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평등의 관계는 공동체를 더욱 결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장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던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 마음에 찔림을 받아 크게 뉘우치며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공동체적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7).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우연히 생겨난 일들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능력 많으신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키신, 그리고 계속 역사하시는 그의 권능의 행사임을 보아야한다.<sup>6)</sup>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생한 모습과 원형적인 교회의 생태를 알 수 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원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 주어 우리들이 언제나 뒤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며 그 순수하고 원초적인 모습을 배울 수 있게 해 준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전도와 구제에 열을 쏟던 교회, 성령강림으로 인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유무상통하는 거의 유토피아적 생활 등을 보여줌으로 우리 모두가 언제나 동경하는 이상적 교회상을 보여주고 있다.<sup>7)</sup>

## 2. 바울서신에서의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과 삶을 기록하고 있다면 바울서신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하는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서신을 통해 우리는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해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바울서신에서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키는 세 가지 호칭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성도들’, ‘형제들’(롬 16:14; 고전 8:12; 16:20; 고후 11:9; 엡 6:23; 골 4:15; 살전 5:26), ‘신자들’(롬 4:11; 살전 1:7) 이라는 말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호칭이

6) 박창환, *신약성경해설*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1990), 185.

7) Ibid., 190.

‘성도들’이다. ‘성도들’이란 단어는 바울서신에서 약 40회 가량 나오는 말로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이 말은 ‘거룩하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교회의 교인들을 ‘하기오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서신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편지 서두와 끝맺는 인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말을 사용했다(빌 1:1; 4:21; 골 1:2). 이것을 통해 바울은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기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사는 자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바울서신서 전체에 언급된 다양한 분쟁 속에서도 바울은 성령이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엡 4:3)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바울의 공동체 인식은 그의 목회 리더십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어 가고, 그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특정한 계층 및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성령 공동체로 보았다.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 성령의 중심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세 가지 이미지 속에서 나타난다.<sup>9)</sup> 그 중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를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사용했다. 이는 두 가지 요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공동체 안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며, 그 두 가지는 ‘같은 한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 됨을 전제하고 있다.

공동체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천만가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고 서로 남을 존중하면서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량과 기능을 바로 알아서 자기 본분을 착실히 행하면서 인간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한다고 권하고 있다(롬 12:3-8).<sup>10)</sup>

8) William Barclay, *바울신학개론*,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194.

9) Gordon Fee,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길성남 역 (서울: 좋은 씨앗, 2001), 105-107.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다. 이 비유는 오직 바울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비유 중 가장 독특하다. 바울은 교회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sup>11)</sup> 특히, 몸을 이야기할 때 그냥 ‘몸’이라고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롬 12:5)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몸이나 세상 사람들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바울서신 중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교회를 일컫는 ‘에클레시아’가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되고 있다(엡 1:22-23; 4:12, 15-16; 5:23; 골 1:18, 24). 이렇게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몸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또 교회의 생명과 충만의 원천이시며 곧 으뜸이 되심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골 1:18).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는 다양한 은사를 설명하고 있다. 마치 팔, 다리, 간, 폐, 심장, 위장 등 온갖 장기가 한 몸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그 기능을 멈추지 않듯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각 사람들이 완벽하게 자기 사역을 다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다.<sup>12)</sup> 우리가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가질 태도는 그리스도가 남을 즐겁게 하려고 자기를 부인하신 것처럼 언제나 남의 유익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하여 화평을 이룩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sup>13)</sup>

인간의 몸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지체들이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역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꼭 필요하다. 각 지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유기체를 이룬다. 이것은 몸이 유기체적 연합으로 각 지체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협력으로 원활하게 활동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sup>14)</sup>

교회는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와 그 몸을 구성하는 많은 지체로 되어 있다.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하고, 다 각각 나름의 필요불가결의 작용과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도 무가치하거나 없어도 될 것은 없다.<sup>15)</sup> 교회는 다양한

10) 박창환, *신약성경해설*, 251.

11) Barclay, *바울신학개론*, 196.

12)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25.

13) 박창환, *신약성경해설*, 255.

14) Robert L. Saucy,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김기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35.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연합을 이루며 서로 돕고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몸 공동체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보다 남을 위해야함을 말하고 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빌 2:2-4)라고 했다. 교회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같은 말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가 되어야한다.

바울서신에서 공동체를 표현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가족으로 비유하고 있다. 바울은 공동체의 모임을 가족적인 맥락과 분위기로 이끌며 그 지체들 간의 관계를 가족 간에 사용되는 언어들로 기술했다.<sup>15)</sup>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5-6).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10).

교회에 관한 바울의 위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 성경은 에베소서라 할 수 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바대로 이 세상은 서로 싸우며 불화하고 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종교와 종교 간에,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그리고 한 사람 자체 내에도 싸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인간들에게 통일을 가져오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라는 통일성을 이루고 나아가 세상 속에 통일을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한다.<sup>17)</sup>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각 지체의 역할에 대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5) 박창환, *신약성경해설*, 289.

16) Robert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문, 1991), 100.

17) Barclay, *바울신학개론*, 198.

이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각 지체의 역할과 지체의 관계,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야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그 목적대로 다양한 지체로 세우셨고 세움을 받은 지체는 그 목적에 맞게 자신의 몫을 다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됨을 말해주고 있다.

바울은 모든 은사들은 겸손한 마음과 봉사의 정신,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다만 한 몸의 지체이기에 조화를 이루며 협동하며 맡은 바 은사를 각 각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용해야한다고 했다.<sup>18)</sup>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에 어느 것은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지 않고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사역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교회를 향한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바른 모습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세 가지 성장의 원리를 볼 수 있다. 첫째 원리는 공동체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의 목표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18) Barclay, *바울신학개론*, 198.

두 번째 원리는 교회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와 16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은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과거 우리는 죄로 인해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용서 받지 못할 일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도 없다.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다.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성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원리는 교회는 참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절에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다. 이 말은 삶으로서의 진리를 증언한다. 참되게 산다는 의미를 가진 단 하나로 된 동사의 우리말 번역이다.<sup>19)</sup> 이 말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을 드리는 영적예배라는 말이 성전 뜰이나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의 장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말이다.<sup>20)</sup>

바울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배울 수 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가족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통일성을 이루어 갈 때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다.

## 제 2 절 살아있는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 공동체가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력이다. 건강한 공동체는 살아 있어야 한다. 공동체가 살아 있다는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말이다.

19) 박동현, *예언과 묵회 I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268.

20) John Stott, *로마서 강해*, 정옥배 역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6), 429.

## 1. 공동체의 특징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자신의 존재를 기뻐해 주는 누군가와,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주기를 즐거워하는 누군가와, 자신이 받은 것이 남과 나누기 위한 것임을 알고 남을 존중하면서 이를 나누어 싶어 하는 누군가와 말이다. 이러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다.<sup>21)</sup> 이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공동체의 정의와 공동체의 의미, 공동체의 필요성과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공동체의 정의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 혹은 조직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살아있는 모임이라는 말이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을 위하고, 결코 다른 도움을 찾아 도망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타인과 함께 하는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sup>22)</sup>

바울서신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오묘한 신학적 개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모임을 언급할 때만 사용했다. 그것은 정식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언급할 때만 사용했던 것이다.<sup>23)</sup> 또한 바울은 에클레시아란 말을 단수형으로도 복수형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형태 모두 다 예배와 신앙교육을 위하여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모인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sup>24)</sup>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to call forth)라는 동사로부터 유래하는데 이러한 것을 토대로 제 2차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름 받은 신자들의 모임(assembly)이다. 이는 모든 성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신 하나

21) Larry Crabb,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 이주엽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2), 98.

22) Larry Crabb,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김명희 역 (서울: IVP, 2013), 51.

23) Frost and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146.

24) Barclay, *바울신학개론*, 188-189.

님을 알고 바르게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의 교제(communion)이다”(17장, 5.123).<sup>25)</sup> 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20세기 중엽 J. C. 호켄다이크(J. C. Hoekendijk)에 의해 그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었다. 그는 교회를 흠어지는 교회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그들이 흠어져서 활동하는 삶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교회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전체이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곳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흠어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그곳에도 교회의 삶이 존재하고 있는 것<sup>26)</sup> 이라고 했다.

우리가 단순히 공동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 그 어원에 있어서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종교적 의미를 내포한 의미로 말한다면 공동체란 ‘지역적 한계를 초월하여 동일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의식을 이루기 위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기독교 공동체에서 적용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청지기적 삶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 공동체로서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7)</sup>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 곧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서로 돕고 나눔으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나. 공동체의 의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인간은 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그레그 옥

25) Greg Ogden, *새로운 교회개혁 이야기*, 송광택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8), 251.에서 재인용.

26)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110-111에서 재인용

27)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도서출판 줄과추, 1998), 59-61.

덴(Greg Ogden)은 말하기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 2:18). 다른 어떤 살아있는 피조물도 아담의 짝이 될 수 없었다. 한 여자가 아담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기뻐하였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2:23). 아담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히브리어는 이러한 상호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완성을 반영하고 있다”<sup>28)</sup> 고 했다.

성경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 사회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니이다”(요 17:2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듯이 그 분의 형상을 입은 인간 또한 관계적 존재, 사회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공동체적’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sup>29)</sup> 그러나 죄는 이러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쳐 놓았고, 그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 교회는 이 깨어진 관계,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꼭 필요한 공동체이다.<sup>30)</sup>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처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를 동족이라고 말하게 했다. 동족은 단지 인척관계(대상 12:2)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이었다(레 25:25, 35, 39, 46-47; 신 15:12; 렘 34:9; 겔 18:18). 나아가 골육지친이란 친밀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공동체를 의식하며 살았다.<sup>31)</sup>

신약에 와서는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더 넓은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을 초월해 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명하셨다. 하나님은 성별, 사회적, 신분별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한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갈 3:28).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 사회적, 성적 차이는 아무런 장애가

28) Ogden, *새로운 교회개혁 이야기*, 51.

29)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206-207.

30) Ogden, *새로운 교회개혁 이야기*, 52.

31)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216-217.

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롬 12:5).<sup>32)</sup> 이러한 생각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시공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건, 모든 장소의 하나님의 백성을 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가시적이고 공간적인 표현이어야 하는데, 공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다.<sup>33)</sup> 성령은 공동체 안에서 은총과 직무와 사명을 심어주어서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관계를 견고하게 한다.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하며, 성령을 통해 사명을 실천한다.<sup>34)</sup>

한스 쿡(Hans Küng)은 그의 책, *교회에서 교회와 성령의 관계성*을 제시해 주는 세 가지 고전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세 가지 교회론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근거로 개체 공동체가 성령의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다. 성령의 전이라는 형상은 이상적인 교회가 사용하는 이상적인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형상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라는 개체 공동체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거룩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가 성령의 성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sup>35)</sup>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각 개인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영 안에서, 또한 주님이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현존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계에 현존하시고 관계하시는 특별한 장소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한스 쿡은 에베소서 2장 17에서 22절을 근거로 전체 교회가 성령의 건축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 개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되었던 것이 에베소서 2장 17에서 22절에서는 이 편지의 구속사적인 전체 구상에 따라 전체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칭하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과 먼 데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sup>36)</sup>

세 번째로, 그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을 근거로 믿는 자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동시에 신령한 집을 짓게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성령의 피조물, 또는 신

32) 권문상, *부흥, 어째인 1907*, 221.

33) Howard A.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71.

34)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62.

35) Hans Küng, *교회*, 정지런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236.

36) Ibid., 237.



령한 집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가 갖는 의미는 모퉁이들이라는 형상보다 산들이라는 형상 속에서 더욱 부각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회는 초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이 집은 지상의 재료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영에 의해 실존하고 모든 지체에 이르기까지 영에 의해서 세워지고 생명을 얻는 신령하고 영적인 성전이 되는 것이다.<sup>37)</sup>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초자연적 하나 됨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 즉 영적 공동체다.<sup>38)</sup>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신앙고백과 성령의 감동, 말씀과 성찬식을 중심으로 한 교제를 통하여 한 가족, 한 형제가 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 서로 용납하고, 지원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약자에게 사랑과 격려를 제공해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는 자율적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개방적이고, 이익과 고통을 공유하며, 용납과 기다림을 중시한다.<sup>39)</sup>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했던 공동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다. 공동체의 필요성

인간이 혼자보다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인 욕구이다. 홀로 나 혼자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인간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인간도 없다. 아니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혼자였던 적은 없다. 창조 이래 인간이 사회적이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말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다.<sup>40)</sup>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최초의 공동체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염원과 의도는 그대로 맥을 유지했다. 하나님은 죄악 된 이방 사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필두로 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앙공동체였다.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써 전 세계에 대한 그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중국에는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류 창조 시부터 가지고

37) Küng, *교회*, 239.

38) Crabb,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52.

39) 설은주, *코이노니아와 신앙교육*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58-59.

40) 권문상, *부흥, 여개인 1907*, 177.

계셨던 원초적 의도 곧 온 세계 만민에 대한 자신의 공동체적 이상을 구현하고자 한 의도는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셨다.<sup>41)</sup>

하나님 나라 구현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감당하기 힘든 그 일들을 꾸준히 감당하며 성취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가르침만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담임목사의 가르침과 선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인가? 그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의 하나 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 된 교회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하나 됨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가 하나 됨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일 보다 우선적인 것이며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창조 시에 하나님은 하나 됨을 계획하셨고(창 2:24), 구속(redemption)을 통해 하나 됨을 창조하셨다. 하나 됨을 만드는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드린 중보 기도의 간절한 내용이었다(요 17:11, 21-23).<sup>42)</sup>

하나 됨을 다른 말로 공동체의 결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문제, 즉 인간관계에서나 정서상으로 겪는 모든 어려움은 함께함이 빠져 있는데서 온다는 사실, 즉 다른 사람과의 결속이 없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모든 문제가 나온다. 그러므로 문제를 이겨내고 참된 자신이 되는 데 필요한 일은 하나님과 다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할 수 있는 공동체와도 이어지는 것이다.<sup>43)</sup>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 됨을 추구하며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영적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비극이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만족하며 그곳이 마치 영적 공동체라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비극이다.<sup>44)</sup>

41)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IVP, 1996), 67.

42)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01*,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69.

43) Crabb,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 75.

44) Crabb,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75.

공동체가 건강하고 온전하면 그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 대한 돌봄과 사랑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

#### 라. 공동체의 특성

하나님은 서로 이어진 인격의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까닭은 바로 당신과 이어지고 또한 서로 이어져 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다. 결속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곧 생명이다. 반면, 결속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는 죽음이다.<sup>45)</sup>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인 권문상은 그의 책, *부흥, 어게인 1907*에서 공동체의 특성을 다음 네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 번째 특성은 자발성, 혹은 자율성이다. 공동체는 억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을 통해 상호 작용을 지속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 다양성이다. 공동체는 하나의 생각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본질을 갖는다.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과정을 거쳐 하나가 되는 유기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한다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이다. 세 번째 특징은 상호의존성이다. 인간은 서로의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입고 산다는 면에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는 공동체는 다른 구성원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때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진정한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자신보다 열등한 구성원도 동등하게 대하면서 같이 하려고 할 것이다. 네 번째 특징은 신뢰이다. 사실 신뢰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상호 의존성이나, 다양성, 그리고 자율성 모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유기적 공동체를 꿈꿀 수 없다. 그러므로 신뢰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첫 출발점이자 공동체 완성을 위한 종착역이다.<sup>46)</sup>

45) Crabb, *뚫어진 관계 다시 잇기*, 114.

46)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184-194.

## 2. 성도들의 신뢰가 있는 교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한 개인으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는 한 건물의 한 개의 돌에 해당한다. 그 점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목을 끌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일부가 되고 있는 건물에 힘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는 마치 돌이 아주 아담한 건물에 있는 돌에 밀접하게 연하여 있듯이,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그 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sup>47)</sup>

이러한 사실을 인간의 육체에 비유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의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구성하려면 각 지체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깨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사랑과 기쁨이 아니라 분쟁과 다툼으로 분열될 것이다.

공동체로서 개인은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서로를 신뢰하는 끈끈한 사랑으로 함께 결속되어 있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공동체 내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된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뢰의 중요성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서로에 대한 신뢰이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다.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가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모습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미용실을 가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관계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믿는 신뢰가 있기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와해될 수 밖에 없다.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질 때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

47) Barclay, *바울신학개론*, 205.

체,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다.

### 3.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죽은 사람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상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서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고 상처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에 자신의 성향과 유사한 사람들과도 만나지만, 반대로 자신과 다른 삶의 자리를 통해 살아온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과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을 호소할 때도 있다. 공동체에서 관계가 순기능을 발휘할 경우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에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 상처 가운데 있거나 혹은 그것으로 삶의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공동체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완전한 죄인들의 모임이다. 즉,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모임이기에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다. 성경속에서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보면 그들도 늘 불화하고 자주 다투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을 인정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곳에는 갈등도 없고 근심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 살아있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

는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을 이해하며 용서와 용납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보지 않은 관계는 건강한 공동체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로 연결된 지체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외로움과 노고와 고통과 슬픔의 순간들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 사랑의 표시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갖 종류의 구체적인 방식들로 자신의 필요가 공동체를 통해 채워지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sup>48)</sup>

영적 공동체와 영적 공동체가 아닌 것의 차이는 갈등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갈등에 대한 태도와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sup>49)</sup> 우리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삶에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상처로 남아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쓴 뿌리가 되지 않도록 치유해 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건강한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면에서 온전한 치유를 추구해야 한다.

게리 콜린스(Gary Collins)는 갈등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등은 모든 인간 활동들 가운데서 가장 만연하며 당황하게 만드는 것들 중의 하나라고 불리워 왔다. 갈등은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양립할 수 없게 보이거나 분명히 진기한 어떤 것을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투쟁이다”<sup>50)</sup>라고 했다. 갈등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한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일반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대개 물러서거나(retreat) 혼내거나(reprove) 탄 데 말기(refer) 것이다.<sup>51)</sup>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백성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이 병든 자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에 처한 사람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요구에 따라서 치유도 행하셨다. 예수님의 치유 태도는 고난당하는 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난에 처한 사람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서 깊이 공감하는 자세였다. 건강한

48) Marva J. Dawn, *희열의 공동체*, 이종태 역 (서울: 도서출판 북 있는 사람, 2004), 109.

49) Crabb,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78.

50) Gary Collins, *크리스찬 카운슬링, 피현회*, 이해련 역 (서울: 두란노, 1984), 469-470.

51) Crabb,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 65.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사랑과 공감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인류와 새 언약을 맺으셨고,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원을 두셨다. 그 자원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갈 때 그런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구성원이 역동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하나 된 공동체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된다.<sup>52)</sup>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외로움과 고통가운데 신음하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 4. 공통의 비전이 있는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을 구하기를 갈망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운 역사로 당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점점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키워 주셨기 때문이다.<sup>53)</sup>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죄로 인해 세상은 타락하고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 죄로 인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 길을 전하기 위해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인 이유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명시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다. 교회는 이 세상 역사가 마감되고 악의 통치가 끝나 눈물과 슬픔과 애곡이 없는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sup>54)</sup>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의 목표 또한 하나님 나라 건설

52) Crabb,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33.

53) Mark Dever,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298.

54)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82-83.

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모든 영역에 미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통치권이 없는 영역으로만 정의하게 되면 누구의 나라인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규정이 불가능하다. 그 나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해 지는 것이다. 그리고 영역 없는 통치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점진적 역사 발전에 의하여 최종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예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된다(마 11:11; 마 21:31; 23:13; 눅 16:16).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과 구속의 영역이라는 것이 제외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 지역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나타낼 수 있는 틀이나 범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삶의 중심에 두고 있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할 수 있었던 것도,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살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저 소망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는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매우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셨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행동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의 작은 형제들'에게 베푸라는 것이다(마 25:40; 45).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의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얻게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상호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횃수의 예배를 드렸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며,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예배와 봉헌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실천하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격을 말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곧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도식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미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한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이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명이다.<sup>55)</sup>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교회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 과제들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주어진 영적 과제는 교회만이 행할 수밖에 없는 양도할 수 없는 독특한 기능이기 때문이다.<sup>56)</sup>

##### 5.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올라야 한다. 21세기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sup>57)</sup>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다.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계시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세상을 향한 근본 메시지이기도 하다. 사도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으며,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에 의하여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sup>58)</sup>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나’에 관하여 말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person

55)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112.

56) Ibid., 115.

57) Ken S. Hemphil, *복음전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안디옥교회*, 이명희 역 (2판; 서울: 서로사랑, 2007), 250.

58) John Dilenberger, *루터저작선*,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56.

and work)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환호성을 지르게 하는 것이다.

복음서 중에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마태복음은 본동사가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에 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마가복음 16장 15-18절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에 강조점이 있다. 그러므로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표현과 강조점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모두가 전도에 있음이 공통적이다. 그것도 어느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으며 그들이 모인 가운데 승천하셨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행 1:6)라고 물었고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행 1:7)라고 말씀하신 후, 그들이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

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 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 증인된 삶을 살았다(행 2:14; 4:31; 5:42; 8:12; 14:22; 20:24-25; 28:23).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유심히 살펴보면, 복음은 사도들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전체가 복음 전도의 소명을 보편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이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서술된 사람들은 사도들만이 아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흩어진 사람들’의 전도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도 외에는 다’ 이들에게 가운데 포함된다.<sup>59)</sup>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온다(행 11:26; 26:28; 벧전 4:16). 그런데 이 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에 따른 고난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한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단지 한 번 만에 죄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셨다. 그 구제책은 인간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알려져야 하고, 또 제공되

59) Dever,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170.

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일이요 또 교회의 일이다.<sup>60)</sup>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참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은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 인간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 들이고 그 분을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일어난다.

미국의 풀러신학대학원 전도학 교수인 리처드 피스(Richard V. Peace)는 말하기를, 기독교의 회심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변한다는 면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와 다르다. 기독교의 회심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돌아섬, 하나님께 반응하는 새로운 삶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속에서 종으로서 그리고 모든 백성을 향한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였다.<sup>61)</sup>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의 길을 잃고 죽어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한 특권에 기쁨을 느끼고 새롭게 헌신해야 한다.<sup>62)</sup> 복음에 대한 열정은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부끄러움으로 인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구원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복음에 대한 열정은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60) Barclay, *바울신학개론*, 200.

61) Richard V.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김태곤 역 (서울: 좋은 씨앗, 2001), 133-134.

62) Dever,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199.

### 제 3 절 결론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기록한 사도행전과 공동체의 신학적 기반을 담고 있는 바울서신을 통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본장에서 살펴본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소통하는 공동체이다. 서로 다양한 환경과 위치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로 통일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한 몸으로 연결된 각 지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주어진 기능을 발휘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다.

공동체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에 건강한 공동체는 생명력 있는 살아 있는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는 공동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의 비전이 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치유와 회복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겉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세상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힘들어 하고 상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차원, 사회·문화적 카테고리, 교회적 현실이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 제 3 장

### 한국 교회 안에서의 문제

교회는 공동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관계는 각 지체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공동체라는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기보다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유가 무엇인가? 본 장에서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유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장에서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에 대해서 그들이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개인주의적 차원, 사회·문화적 카테고리, 교회의 현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개인주의적 차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환경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평소에 건강한 자아상을 소유한 경우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환경은 그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위축되게 한다. 건강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로 인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힘들고 아플 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공동체로 통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본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치심과 적대감

‘수치심’이란 말은 보통 ‘부끄럽다’는 말로 표현해서 사용한다. 부끄러움이란 용어는 국어사전에서 어떤 일이나 행동에 대해 당당하거나 떳떳하지 못하게 느끼는 상태에 있거나 솟기나 용기가 없어서 거리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sup>63)</sup>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 행동을 통해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 수치심을 느낀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거부당했다는 느낌 때문이다. 극도로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위축되어 그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숨고 싶어 한다. 그들은 자신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면 자신에 대한 의식이 극대화되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결함이나 감추고 싶은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sup>64)</sup>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치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주요한 정서 가운데 하나다. 수치심은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혹은 자신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평가이다.<sup>65)</sup> 그러므로 수치심에 빠지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감을 느껴 아담과 하와처럼 숨게 된다. 그래서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수치심은 인간의 근원으로부터 분열된 것에 대한 찢을 수 없는 회상이며, 분열에 대한 고통이고,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무력한 열망이다”라고 했다.<sup>66)</sup>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수치심을 지적하는 문화에서 살아왔다. 예를 들어 ‘인과응보’라는 사상은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아무리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심한 비극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게 만듦으로 그러한 상황을 가져오게 된 원인을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돌렸다. 이것은 좋은 결과와 환경을 만났을 때는 괜찮지만 힘들고 괴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스스로를 부끄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미워하여 자책하고 확대한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자꾸만 이렇게

63) 김홍찬, *수치심 치유 지침서* (서울: 한국기독교 상담연구원, 2007), 17.

64) 김준수, *마음의 치유* (서울: 디모테, 2006), 128.

65) 김병오, “수치심에 대한 목회신학적 이해,” *목회와 신학*, 2013년 5월호, 50.

66) Dietrich Bonhoeffer, *기독교 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8.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후회한다. 그런 모습을 보인 자신이 싫은 것이다.<sup>67)</sup>

이런 생각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큰 힘으로 작용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르침들과 실천들은 수치심을 부여하고 자극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수치심의 광장이다. 수치심을 경험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며, 현실의 실재에 기초한 가치관이 손상되는 삶의 불균형을 겪게 된다.<sup>68)</sup>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 수치심은 자신의 정체성에 뿌리를 내려 삶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매사에 소극적이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며 현실에 대처하는 적절한 감정이나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피하고 숨어버리려고 한다.

공동체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스스로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피하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조금만 자신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라도 하게 되면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외로움과 공허함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현대인들이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 외로움에 대해 그랜드 국어사전에서는 "홀로 있어 쓸쓸함"<sup>69)</sup>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 외로움에 빠지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스스로 혼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혼자라는 고독함을 의미한다.

인간의 바탕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려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 함으로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관계 형성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갖게 되었다.<sup>70)</sup>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혼자라고 느낄 때, 다

67) 김준수, *마음의 치유*, 131.

68) 김병오, "수치심에 대한 목회신학적 이해," 51-53.

69) 운평어문연구소, *그랜드 국어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1992), 1902.



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배척 받을 때,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은 그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린다.

외로움에는 '정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그리고 '실존적인 것'이 있다. 정서적인 외로움이 자신의 기분상태로부터 오는 외로움이라면, 사회적인 외로움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사라질 때 생기는 외로움이다. 그리고 실존적 외로움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원천적인 고독감을 말한다. 인간이 느끼는 실존적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해결될 수 있지만 '정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기에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외로움이 해결되지 못한 채 깊어지게 되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의 유혹으로 인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고, 넘지 말아야 할 범주를 넘게 된다.<sup>71)</sup>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하고 파괴적인 질병이 '외로움'이다. 외로움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혼자라는 생각 속에서 외톨이가 되고, 병든 자아상을 갖게 되며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라는 생각 속에 결국 우울증으로 변해서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sup>72)</sup>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왕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왕따'란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했다는 말이다. 배척당함은 그로 하여금 외로움을 갖게 하며 스스로를 위축하게 만든다. 아울러 공허함이란 인간의 실존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리, 그것도 책임자인 세리장이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조국을 배신한 배국노라고 지탄 받았다. 삭개오는 세리장의 신분으로 부자는 되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했다. 친구가 없었다. 돈이 많아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외로움과 공허함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었다. 그

70) 설은주, *코이노니아와 신앙교육*, 159-160.

71) 김경수, *회복* (서울: 배드로서원, 2010), 192.

72) 김경수, *상처의 회복* (서울: 예루살렘, 2004), 240-241.

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시고 공동체로 받아 주셨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삭개오처럼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외로움과 공허함은 그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 3. 열등의식

열등의식은 자기 스스로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감정이다. 즉, 자존감 (self-esteem)이 부적절하게 낮은 것이다.<sup>73)</sup> 열등의식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나온다.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보이면 우월 의식을 가지기도 하지만 자기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을 만나면 금방 기가 죽고 열등의식을 느낀다.

사람은 외형적 얼굴과 내면적 얼굴을 가지고 있다. 내면적 얼굴은 자기 생각의 자화상인데 이 내적 자화상이 자기의 운명과 성격, 환경과 생활을 좌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과 성격을 싫어하는데 이것이 열등감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매사에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게 만든다.<sup>74)</sup> 이스라엘 초대 왕 이었던 사울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7)라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열등감에 빠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므로 열등감은 건강치 못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다.

대부분의 열등의식은 성장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데 특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을 경우에 강하게 나타난다.<sup>75)</sup> 이러한 열등의식은 한국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비해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 달리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한다는 것이다.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민감하다.

사실 열등의식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 왜냐하면 열등의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단점이 있다는 것인데, 세상에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

73) 유진소, *하나님 형상 회복* (서울: 두란노서원, 2003), 104.

74) 김경수, *회복*, 39.

75) 김경수, *상처의 회복*, 38.

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 또한 있기 마련이다. 열등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통해서 느끼는 마음의 감정이다. 그러므로 열등감은 그가 처한 객관적 사실보다도 스스로의 마음 안에 가진 주관적 느낌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열등의식은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긴다.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김경수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 네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격 자체가 적극적이어서 굉장히 나서기를 좋아한다. 둘째,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가운데 성격 자체가 소극적인 사람은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셋째,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넷째,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다.<sup>76)</sup>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멸시한다.<sup>77)</sup>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마 9:13)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소개해야하고 자신보다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말할 때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한다. ‘메뚜기 콤플렉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나온 용어이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선별된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탐지한 이후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스스로 느꼈던 열등감이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열등의식은 환경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 좋지 않은 환경가운데서 성장했을 경우나 그러한 환경에 있을 경우 열등감을 느낀다. 더욱이 한국인들은 신체적인 열등감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키가 작다는 것, 몸이 뚱뚱하다는 것, 외모 콤플렉스에 빠져서 열등감을 느낀다. 이것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싫어지고 자신의 얼굴에 대한 약점을 누군가 지적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한다. 오늘날 한국을 가리켜 ‘성형공화

76) 김경수, *상처의 회복*, 40-41.

77) 박봉진, *치유와 회복* (서울: 콤파출판사, 2009), 116-117.

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성형에 관심가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오는 열등감이고 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 느끼는 열등감이 있고, 학벌로 인한 열등감도 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자신보다 더 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를 볼 때 열등의식을 느낀다고 한다.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다른 직분자에 비해 자신이 경제력이나 학력,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힘이 약할 때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열등의식은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갖고 있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출 3:11)라고 말했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는 자신은 본래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며 보낼 만 한 자를 보내라고 말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는 자기의 재능이나 신체적 결함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sup>78)</sup>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영향을 미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면 생각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하고 불안 심리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등의식은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문제가 된다.

#### 4. 조급성과 극단성

조급함이란 “참을성 없이 매우 급하다”는 것이다.<sup>79)</sup> 다시 말해, 조급함은 마음이 급해서 참을성을 잃어버리고 행동하려는 마음을 말한다. 이런 행동들은 한국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으므로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성공해야만 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한국인의 조급증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서울이 세계의 도시들 가운데 보행자의 발걸음이 가장 빠른 도시이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더디게 느끼는 것도 조급증 때문이다.<sup>80)</sup> 그뿐만 아니라, 조급증은 행동에도

78) 김경수, *회복*, 40.

79) 윤평어문연구소, *그랜드 국어사전*, 2291.

영향을 미쳐 일상에서 ‘빨리빨리’라고 재촉하며 빠르다는 것이 한국인의 미덕이 되었다.<sup>81)</sup>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민족이라고 한다. 무엇을 하든 빨리 빨리 해서 한국인과 접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빨리빨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sup>82)</sup> 어디를 가더라도 기다리지 못한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조급증은 자녀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상급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교과과정을 미리 가르치는 선행학습을 하거나 조기영어교육의 열풍은 해외로까지 넘쳐가고 있다. 건축공사를 할 때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며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같은 건물들이 무너지는 부실공사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인의 조급증은 운수업에서도 볼 수 있는데, ‘총알택시’가 그것이다. 총알택시는 목적지까지 최소한 두 시간 거리를 불과 30분도 안되어 도착하기도 한다. 일본에는 ‘신풍(神風)택시’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의 총알택시와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의 택시 기사들 중에는 자동차 경주 선수로 변신해도 크게 성공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한다.<sup>83)</sup>

사람들이 조급하게 되면 쉽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게 되며 작은 일에도 노를 발하게 된다. 여유가 조금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일도 불필요하게 화를 내게 된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조급증은 결과적으로 극단성을 낳게 했다. 극단성의 모습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인데, 한국인들은 토론할 때나 시위할 때 보면 너무 극단적이다. 한 시위현장에서 찍은 사진에서 “차라리 죽여라!” 그것도 자극적인 빨간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쓰여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빨간색은 극단적인 적개심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죽음이라는 말을 썼으니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다. 이 외에 “꺼져라”, “망해라”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스런 단어들을 쏟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하면 자살이니, 정치가들은 무조건 사퇴하라고 야단이다. 대화로 기다리며 인내하고 양보하려는 여유가 없다.<sup>84)</sup>

극단적인 모습은 자기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80) 한창수, *대한민국 다시 읽기* (서울: 알타미라출판, 2010), 118.

81)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3* (서울: 신원문화사, 1983), 282-283.

82)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1997), 219.

83) 이케하라 마모루, *한국·한국인 비판* (서울: 중앙M&B, 1999), 105-106.

84)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116.

수 있다.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극단성 때문에 많은 아픔을 갖고 있다. 해방 직후에 극단성은 우익과 좌익이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며 죽었다. 물이 너무 뜨거워도 생명을 죽이지만 너무 차가워도 생명을 죽일 수 있다.

이러한 극단성은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인들의 극단성에 대해서 김두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기독교인 끼리 싸울 때는 최악의 경우에도 이 세상의 목숨만 걸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상대방의 '저 세상' 목숨도 끝장내려 하기 때문에 더욱 살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토론을 보다보면, 자신이 마치 상대방을 지옥으로 보낼 특별한 권한이라도 가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sup>85)</sup>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극단성은 결국 서로 세워주고 건강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 5. 성공주의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사전에서 성공(success)이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성공에는 관심 없고 그저 되는 대로 대충 대충 살아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한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민감하다. 그래서 한국인을 가리켜 '성공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인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출세 제일주의에 오염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성공해야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늘 경쟁 속에서

85) 김두식,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서울: 홍성사, 2010), 17-18.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에만 집착하려고 한다. 결국 성공에 대한 집착은 사회로 하여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고를 심어주어 성공만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다. 성공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도 없이 세상의 가치관이 성공을 가름하는 잣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교회도 물들게 하여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곧 신앙의 성공인 것으로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것들이 돈, 명예, 학벌, 권력 등이다. 사실 돈 많이 버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다. 명예는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더욱이 명예욕은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에는 권력이다. 사람이 한 번 권력의 맛을 보면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한다. 그만큼 권력은 중독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권력을 소유한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흔히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다루는 것들이다.

한국 교회도 이러한 성공주의에 빠져 개인적인 성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심어줌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른바 명문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서도 환영을 받지만, 시험에 실패하여 정작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누를 끼친 사람으로 평가절하 되었다.<sup>86)</sup>

결국 이것이 건강해야 할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 심지어 기록하고 깨끗해야 할 교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기 위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예로 인식하고 권력으로 이해함으로 많은 교회가 항존직 선거로 인해 홍역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마다 온갖 중상모략들이 나돌기도 하고 선거 이후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본다. 우리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성공주의는 결국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장벽이다.

86) 김두식,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41.

## 제 2 절 사회 문화적 카테고리

식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나무를 베어내고 속에 있는 나이테를 보면 당시의 강우량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비가 많이 왔는지, 또는 가뭄이 들었는지를 나이테가 말해 준다는 것이다.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사람은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기에 환경이 주는 영향력은 크다.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절에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개인주의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일 것이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도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다. 모두가 자기라는 테두리 안에서 담을 쌓고 살아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유기적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공동체이다.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개인주의이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 권리, 개성, 창의성, 자발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자율성을 증대시켜 책임적인 자아가 되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 방종에 흐르기 쉽고 이기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누군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려고 할 때 공동체성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87)</sup>

개인주의에 대해서 권문상은 서양적 사고 속에서는 집단 안에서 '각각의 개인'을 존중하지만 동양의 사고에서는 집단주의 사고이기에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인주의에 관해서는 서양과 동양이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 서양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동양은 집단주의 문화권이기에 부정

87) 이원규, *한국 사회 문제와 교회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9.



적으로 본다....서양의 개인주의는 각 개인의 인권(권리)이 존중되면서 책임(의무) 또한 따른다.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아예 무관심한 것이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의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될 때는 자기 일을 멈추고 그를 돕는다.<sup>88)</sup>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다. 이는 ‘귀족의 의무 또는 특권에 따른 책임’이라는 뜻이다. 서양에서는 모든 귀족들, 곧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특권을 이용해서 반드시 특권을 못 가진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전통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귀족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sup>89)</sup>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웬 참견이냐” 라는 식이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사람들은 세계화 추세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직장을 버리고 국가를 버린다. 자신이 속한 기업이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기업으로 서슴지 않고 옮겨간다. 개인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은 교인들 사이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라는 의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교인 중 76퍼센트가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다고 한다.<sup>90)</sup>

사람들은 점점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어 한다. 교회보다는 개인이 우선이다. 예전처럼 교회를 위한 절대적 헌신, 희생, 충성의 요구가 먹혀들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이 경제적 문제로 쓰러지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즐기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sup>91)</sup>

결국 이러한 개인주의는 여러 가지 성경적 삶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신약의 공동체, 성찬식, 교제, 상호 의존, 그리고 책임감 등의 가치들과 반대되기 때문에 목회 사역에 분파주의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개인주의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88)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152-153.

89) 손봉호, *고상한 이기주의* (서울: 규장, 1998), 41.

90)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173-174.

91) Ibid., 175.

목적은 개인의 성공과 결부시켜 해석한다.<sup>92)</sup> 그러므로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아울러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은 한국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교회공동체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개교회주의로 나가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에 대해서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손봉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된 서양에서도 우리의 것과 같은 부정적인 개교회주의를 찾아볼 수 없고, 다 같은 유교적 문화권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도 우리의 것과 같은 개교회주의가 나타나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우리민족의 독특한 약점 때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sup>93)</sup>

이러한 개교회주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존속시켜온 강한 힘의 원천이 되었고, 또한 교인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지킨다는 순수한 헌신과 내면적 열정을 갖는 긍정적 면이 있는 반면에, 유교적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빠져들고, 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들, 그리고 개교회주의에 빠져 교회간의 연합과 단결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진리의 보편성을 드러내야 할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sup>94)</sup>

## 2. 윤리 의식의 부재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과거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 과거 한국사회는 윤리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윤리적 가치관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산업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상황이 바뀌어졌다. 산업화는 우리에게 많은 유용한 것을 가져다 준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도 많다. 그 가운데 하나

92) James Means, *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배현석, 김용국 역 (서울: 나침반, 1997), 72.

93) 손봉호, "한국교회와 개교회주의, 그 문제와 대책," *목회와 신학*, 1995년 3월호, 91.

94)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48.

가 윤리의식이다. 산업화는 가족구조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게 했고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대가족으로 생활할 때에 터득할 수 있는 사회성을 배울 기회를 잃게 만들었고 나아가 윤리의식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

경제성장의 과정은 도덕주의 가치관의 붕괴와 물질주의 가치관의 확산을 가져왔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과 공동체성이 철저히 깨져 버렸다. 사회 구성구석에서 돈 벌고 쓰는 일에 윤리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 바르고 착하게 살기보다는 우선 잘 살고 보자는 풍토가 조성됨으로 우리 사회는 문화적 저질화와 도덕성 붕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sup>95)</sup>

결국 도덕성 붕괴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크게 위협하게 되었다. 배금주의, 한탕주의와 같은 천박한 가치관이 만연하고 경제적 불평등과 분배정의의 부재와 같은 구조적 모순을 가져왔으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통해 생겨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등은 각종 범죄와 같은 일탈행위를 크게 조장했다. 도덕성, 공동체성이 붕괴된 상태에서 우리 사회는 법과 질서가 유린되고 무규범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아노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sup>96)</sup>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의식이 사라짐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물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회와 신학*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목회와 신학* 정기 구독자, 신학교 교수, 신학생들을 상대로 '10년 후 한국교회의 모습을 예측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교회가 감소할 이유에 대해서 모든 그룹이 만장일치로(41퍼센트) 목회자 및 성도의 낮은 윤리적 수준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sup>97)</sup> 이것은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의 윤리적 수준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이다.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목회자 및 성도가 사회, 문화적 영향에 치명적으로 물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무속적 세계관

한국인의 삶의 뿌리에는 무속신앙이 자리 잡고 그것이 모든 사고와 인생관과 세

95) 이원규, *한국 사회 문제와 교회공동체*, 46-47.

96) Ibid., 258-259.

97) "10년 후 한국 교회 설문조사 결과 분석," *목회와 신학*, 2009년 7월호, 95.

계관과 신앙관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샤머니즘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널리 몽고, 만주, 한국, 일본 그리고 우랄알타이 제 종족들 사이의 공통적인 원시 종교”<sup>98)</sup>이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무속에서의 신은 인간들에게 불행만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행복할 때는 굳이 어떤 신에게 감사한다든지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개인이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불행을 당할 때 신을 찾았다. 그 신들은 인간들의 대접 여하에 따라 불행을 거두어 간다고 인식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신을 달래고 어우르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든다할지라도 불행을 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감수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은 어떤 신이든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전혀 개의치 않고 섬겼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신을 믿는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우리는 흔히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유교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유교가 그것을 이론화하는 데 일등공신이기는 하지만 원래 조상신을 받드는 것은 무교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가족 이기주의로 자리 잡아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자리할 수 없게 했다. 이타적 사고방식이 싹트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가족의 생존과 번영만이 관심의 전부였다. 자기 가족에게 이롭기만 하다면 이웃이 손해를 보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사고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99)</sup>

무속신앙에서 죽음은 생의 연장이다. 부모가 죽어도 살아계신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를 대하듯이 죽은 부모를 대한다. 그러므로 무속종교의 관심영역은 이웃과 혹은 사회적 인간관계보다는 자기와 자기가족에게 제한된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자리할 수 없게 된다. 무속종교는 가족중심의 현세적 축복을 위해서,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다.<sup>100)</sup>

마을 어귀에 보면 그 마을을 지켜준다는 ‘서낭당’이 있고 그곳에서 제를 모셨다. 가정에서는 여인들이 가족의 건강과 복을 위해서 ‘정화수(井華水)’를 떠 놓고 천지신명께 빌기도 했다.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굿을 했는데, 굿을 해서 신을 달래고 어우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무속신앙은 다양한 점법들을 사용하게 했는데 중요한 시기마다 점을 통해 일시

98) 원형갑, “기독교와 샤머니즘,” 기독교 사상, 1974년, 4월호, 31.

99) 권문상, 부흥, 여제인 1907, 90-91.

100) Ibid., 80-82.

를 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포되어 있는 점서는 '토정비결'이다. 지금도 연말연시가 되면 여기저기서 토정비결을 보는 풍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sup>101)</sup> 또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주팔자를 따지기도 하고 심지어 목회현장에서도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합니까?'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성도들도 있다.<sup>102)</sup>

무속신앙의 핵심은 가족 중심의 기복 문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 외에는 관심도 없다. 그 속에서는 이타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이 자라날 수 없다. 무속신앙에서 사람이 죽으면 현재 살아 있는 인간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죽기 전의 그 관계를 계속 이어 나간다는 것이다.<sup>103)</sup>

한국인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속적 세계관은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속종교는 영적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줌으로 기독교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안내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독교 본래의 정신을 구현시키는데 있어서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서 권문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신교 선교 100여 년 만에 이룬 괄목할만한 성장은 일부분 이러한 무속 신앙적 열심 때문이었다. 비록 가족 중심적 열심이었지만 우리 부모들의 지극 정성으로 점철된 그 절박에 찬 신앙심은 분명히 교회 성장에 기여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기독교 본래의 정신을 구현시키는 데는 역부족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만큼 샤머니즘이 우리 뱃속에 사무쳐 있어서일 것이다.<sup>104)</sup>

결국 무속 신앙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고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을 이기적이고 기복적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고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적인 삶을 살게 했다. 또한 하나님을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보다는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부각시켜 하나님을 공포를 조장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게 했다. 이러한 무속적 세계관은 오늘날처럼 교육 수준이 높아

101) 박일영,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 (왜관: 분도출판사, 2003), 163.

102) 서재생, *목사님도 모르는 교회 안에 무속신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 221.

103)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78-80.

104) *Ibid.*, 93-94.

지고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과학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느냐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들의 삶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가족 중심적 사고와 반공동체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게 했다.

#### 4. 유교적 영향

무교가 한국인의 감정의 핵을 이루는 모성적 종교라면 유교는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인의 행동방식이며, 표현방식이다. 비록 유교가 오늘날 전문적인 사제나 회당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인의 생활방식과 의식구조를 주도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다.<sup>105)</sup>

유교는 중국 민족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생활화하고 체계화한 문화적, 사상적 전통으로서, 우리 민족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선사 시대부터 민족 이동을 통하여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유교 문화가 수입되어 왔다.<sup>106)</sup>

유교가 한국에 들어옴으로 그것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권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배타적 ‘우리’ 의식은 샤머니즘의 가족 중심적 문화와 지정학적 악영향에 따른 내 가족 챙기기 문화의 기초 작업에 의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왔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은 한국에 유교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유교가 들어와서 사회 규범으로 체계화시킴으로 더욱 강세를 발하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유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족 중심적’ 생활에 머물렀지만 이를 계기로 ‘가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발전했다.<sup>107)</sup>

우리나라의 가족주의가 얼마나 폐쇄적인지는 같은 유교 문화권인 일본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에는 ‘이에’(家)라는 문화가 있는데, 일본의 ‘이에’는 그 구성원의 경계가 우리나라처럼 폐쇄적이지 않고 매우 탄력적이다. 그들은 비록 같은 혈족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이에 문화’가 얼마나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는지 잘 보여준다. 반면에 우리는 문중중심의 가족주의로 문

105) 감리교 목회상담센터, *한국문화와 목회상담* (서울: 목회상담, 2003), 56.

106) 금장태, *유학사상의 이해*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350.

107)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117.

중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혈족'만을 고집했다.<sup>108)</sup>

우리나라의 가족중심, 문중중심의 가치관은 공휴일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휴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설과 추석이다. 다른 공휴일은 그저 하루 노는 날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일제의 질곡에서 해방된 8월15일이나 우리나라가 처음 열린 10월 3일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가족중심, 문중 중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집안을 넘어서는 공동체의식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sup>109)</sup>

한국에 입양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한신대학교 신학연구소 학술 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만약 입양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독교인들은 가장 큰 이유로 "내 친자식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가 39.2퍼센트로 다른 이유들을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up>110)</sup> 특히, 남자들은 "내 친자식이 아니어서"라는 항목에 42.9퍼센트의 응답을 기록했다.<sup>111)</sup>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내 가족, 내 핏줄을 최고로 하는 유교의 가족주의 문화 때문이다.

유교는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집단 이기주의 심리를 우리의 의식으로 분출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교의 가족주의가 우리의 심리적 집단 이기주의 성향을 우리의 삶 속에 공개적으로 제도화시킴으로써 그것을 체질화시켰던 것이다. 이에 대해 권문상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유교의 가부장적 수직 윤리로 차별과 억압을 받으면서도 강력한 '나'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를 강조한 것이 집단 이기주의를 고착시킨 것이다. 내 힘 또는 내 가족(또는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말이다. 이는 당연히 이기주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이 '우리'는 보편적 범위를 갖지 못했다. 다른 사람을 '우리' 안에 편입시킬 때 상대를 매우 차별적으로 대하면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sup>112)</sup>

유교의 가족 중심주의에서는 개인은 없다. 개인은 오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

108)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138-139.

109)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가 없다고?* (서울: 세계절출판사, 2000), 66.

110) 한신대학교학술원신학연구소, *한국인의 문화의식 조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182.

111) Ibid., 290.

112)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151-152.

에서만 개인이 드러난다. 따라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교는 개인의 독자적 위치를 충분히 확보해 주지 못하고, 개체가 가족질서 속에 매몰되어 가족주의적인 의식 속에 갇혀 있게 만들었다.<sup>113)</sup> 그래서 어떤 학자는 유교를 ‘가족주의 종교’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가족형적 정치체제’라고 규정짓기도 하였다.<sup>114)</sup>

그뿐만 아니라 유교의 가족주의는 권위주의적 수직 윤리를 기초로 해 반공동체적 폐거리 문화를 만들어 냈다. 그래서 한국인이 속한 곳, 학교, 직장, 심지어 교회를 비롯한 종교 단체에 까지 반공동체성이 활보하고 있다. 이것은 유교의 가족주의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폐거리 문화는 언뜻 보면 공동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공동체적이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 중심의 집단 이기주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sup>115)</sup>

유교는 한국의 역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분열의 원인은 폐쇄적 가족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다. 유교문화는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연줄 문화로 발전했고, 나아가 대부분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연 관계라는 또 다른 연줄 문화로 승화되었다. 이것이 ‘내’ 가족, ‘우리’ 사람 문화를 생산해 분파주의, 파벌주의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유교문화는 고스란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내재되었다.<sup>116)</sup>

가족주의는 교회공동체 안에서 항존직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선거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신앙적인 경륜보다는 인맥, 지연, 학연등을 먼저 찾고 조금이라도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자를 세우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 됨을 추구하며 건강해야 할 교회 공동체에 상처와 갈등을 조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113) 금장태,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1), 182-183.

114) 조남욱외, *현대인의 유교읽기*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5), 30.

115)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149-150.

116) *Ibid.*, 66-67.



## 5. 지정학적 상황

우리나라는 77퍼센트가 산으로 둘러 싸여있다. 높다란 산으로 앞뒤가 막혀 있어서 지리적으로 다른 마을과 교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은 사회성을 기르는데 악영향을 주었다.<sup>117)</sup> 산으로 둘러 있다는 것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 결과 사회성이 결여되고 자연히 촌락 중심의 배타적 집단주의를 형성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주산업이 농업인데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리시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천수답이 대부분이다. 그것도 절반이상이 단 며칠 사이에 퍼붓는 집중호우인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이 평형천이어서 바닥이 낮아 결국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쉽게 무너지므로 마을이 평야를 피해 산기슭에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골짜기는 물이 충분하지 않아 주로 혈연 중심으로 마을이 소규모로 형성되었다. 한국인의 심성이 안으로 쉽게 응고되어도 배타심이 강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리시설의 규모는 결국 타부락과의 연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들었다.<sup>118)</sup>

뿐만 아니라 농경문화는 집촌 마을을 형성했는데 낮에는 논과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한 마을에서 여러 친족과 함께 지냄으로 자연히 친족 중심의 폐쇄적 공동체만이 전부인 인생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생관은 산 너머 다른 마을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설령 만난다고 해도 경계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어렵게 했다.<sup>119)</sup>

우리나라의 산세 역시 사회적 구조를 제약하는 지리적 여건이 되었다.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 등 국토를 가로지르는 큰 산맥들은 지역고립은 물론 분단을 초래하여 지역간의 교류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120)</sup>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인생관을 갖게 하고 폐쇄적인 문화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한반도는 풍토적으로 홍수와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자연 재해가 한국인들의 심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권문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17)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101-102.

118) 한백연구재단, *21세기 한국과 한국인* (서울: 삼성출판사, 1993), 41-42.

119)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104.

120) 고희화, *한국인의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1989), 48.

자연 재해를 연중행사로 맞이하다보니 가옥구조도 거기에 맞추어졌다. 굵은 나무 기둥, 높은 돌담, 그리고 여러 개의 문으로 된 높은 대문 등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한 폭우와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가옥 구조는 다른 마을 사람은 물론 같은 마을에 사는 친족에게라도 그렇게 개방적일 수만은 없는 마음을 만들었다....이러한 문화는 자연히 다른 사람을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알게 모르게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왔다.<sup>121)</sup>

사람들은 자연의 무서운 힘을 인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어렵다는 의식과 더불어 씨를 뿌리고 이를 거두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인식하고 정착에서 오는 안정을 얻기 위하여 낯이 다른 이방사람과의 접촉보다는 아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자기의 생명을 계보적으로 이어가려는 충동이 강했다.<sup>122)</sup>

이처럼 지정학적 환경은 폐쇄적인 '우리' 의식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라는 말이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다른 사람과 구별해 '우리'를 말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 '우리' 의식은 나와 무관할 경우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sup>123)</sup> 그러므로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성을 결여시켰고 그 결과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하나 됨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 제 3 절 교회적 현실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각 지체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주는 치유자의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그러나 오늘날 건강한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는 안타까움을 본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적 갈등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 하고 있다. 물론 한국 교회의 갈등은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 크든 적든 교회 내 갈등은 항상 존재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갈등의 도가 지나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있어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121)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106-107.

122) 고흥화, *한국인의 지역감정*, 48.

123)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111-112.

## 1. 교회의 세속화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성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의미한다. 세속화라는 개념은 교회의 모든 비본질적이고 왜곡된 모습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어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세의 유럽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세속화된 한국교회는 제 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한국교회는 무엇이 ‘올바른’ 교회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실용적 사고로 무장한 단세포적이며 덜 기독교적인 무늬만의 ‘신앙인’을 찍어내고 있다.<sup>124)</sup>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주변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에 빠져서 약자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가진 자를 위한 종교로 전락되고 말았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철저히 세속화하여 ‘교회 속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들어오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속의 세상’이 되어 버린 세속화된 교회는 날로 그 힘을 축적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가진 사람의 편’을 드는 교회가 되어 버렸다.<sup>125)</sup> 헌금을 드리는 것도 드린 ‘만큼’ 하나님이 감복하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르치고 시험이나 승진 등의 개인적인 성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성모독적 가치관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는 기준이 세상에서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생각으로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높이 올라가는 만큼, 딱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가치관을 심어 준 것이다.<sup>126)</sup>

사실 ‘물질이 최고’ 라는 것은 한국교회 안에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모교단에서는 총회장을 선출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또 한기총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

124)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93.

125) 김두식,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16-17.

126) Ibid., 40.

교 단체에서도 심심찮게 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해야 할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쳐 돈만 있으면 교회의 직분도 받고 큰 소리도 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람대접도 받게 만들었다. 결국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신앙의 소리는 약해지고 교회가 병들고 어두운 사회를 향해 빛을 비출 수가 없게 되었다.<sup>127)</sup>

미국에는 '번영의 신학'이 있다. 이것은 미국이 경제공황 시기와 같이 아주 어려웠을 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잘 살게 되면서 이런 신학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상당수의 한국교회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 때와 6·25 사변 전후에는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신학자들이 없었다. 오히려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살게 되면서 '번영의 신학'이 생겨나게 되었다.<sup>128)</sup> 이러한 신학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또 복 받아야 한다고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교회의 세속화는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교인들로 하여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찾게 만들었다. 옛날에는 설교만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당이 좋아야 한다. 또 예배당이 아무리 좋아도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 찬양대 가운도 좋아야 하고 비디오와 에어컨에 장식도 아주 고상하고 우아해야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저는 아무 교회 교인이다." 하고 자랑을 한다. 마치 "나는 아무 대학교 들어갔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교회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교회가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sup>129)</sup>

또한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 내 직분의 명예화와 서열화를 조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직분을 받으려고 하고 만약 나이가 들어서도 직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수치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상하게 여기게 됨으로 많은 성도들이 돈을 사용해서라도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sup>130)</sup>. 또한 개인의 성공주의와 무속적 세계관은 교회 안

127) 윤승중, "사도행전적 건강한 교회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9), 39-40.

128) 손봉호, *고상한 이기주의*, 35.

129) Ibid., 98-99.

130) 신동식, "교회 직분과 돈," *목회와 신학*, 2011년 11월호, 77.

에 기복주의 신앙을 가져왔다. 그래서 직분을 복과 연계해서 생각하게 만들어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직분을 받아야하고 만약 받지 못하면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sup>131)</sup>

교회의 세속화는 결국 건강해야할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점점 병들게 만들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할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림으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 2. 치유사역의 부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부르신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요구하신다. 위로하라(comfort)는 라틴어 con과 fortis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 의미는 “함께 있으므로 힘을 북돋아 준다”는 것이다.<sup>132)</sup>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약한 자, 병들고 고통 받는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도, 서점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보면 온통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상한 책들만 넘쳐 난다. 흔하디흔한 각종 처세술 책 내용에 적당히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추어 놓은 책들이다.<sup>133)</sup> 이런 현상은 교회의 사역에도 영향을 미쳐 교회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사역들이 성도들의 내적인 치유와 회복보다는 화려하고 거창한 걸로 드러나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추부길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현실적 이유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공자가 살아 역사하는 한국 교회’ 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 교회가 ‘성령이 살아 역사’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가 살아 역사’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에 화제를 던져준 책이 세 권 있는데, 그 세 권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 생사를 건 교회 개혁,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이다. 그

131) 신동식, “교회 직분과 돈,” 78.

132) Melvin J. Stenbron,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서병채, 김종태 역 (서울: 평신도목회자연구소, 1998), 53.

133) 김두식,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32.

런데 이 세 권의 공통점이 ‘한국 사회는 공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자가 한국 사회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sup>134)</sup> 이 말은 결국 한국교회가 유교적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준 말이다. 유교문화는 권위적이고 타 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집단 이기주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문화에서는 약한 자, 상처 받은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치유사역의 부재를 가져왔다.

이제 교회 공동체는 의도적으로 돌보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돌봄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의 다른 부분, 즉 교육, 전도, 예배, 재정, 재산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를 상대로 하는 목회적인 돌봄사역을 위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sup>135)</sup> 돌봄의 의미는 정원사가 정원을 돌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원사는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주며 시들은 나무에는 물을 주고 뼈죽 솥은 가지를 치기도 하며 나무들이 건강하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 즉,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돌봄은 돌봄을 받는 사람의 안녕(well-being)에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것이다.<sup>136)</sup>

오늘날 미국 교회는 협력과 회복그룹을 많이 세우고 있다고 한다. 한국 교회도 중독자나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sup>137)</sup>

### 3. 성장 중심의 사고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성장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다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해야 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복음 전파가 지상최대의 명제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전인적 성장을 가져와야 하듯이 복음 전파 역시 믿음의 완성을 가져와야 한다. 무엇을 위한 성장이고, 어떤 성장이어야 하는지 대답을 해야 하

134) 추부길, *가정사역닷컴* (서울: 한국가정사역연구소, 2002), 15.

135) Stenbron,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62-63.

136) 문미선, *상황적 치료를 통한 목회상담* (서울: 하나의학사, 2006), 20-21.

137)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신문사, 2000), 33.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교회들은 오로지 교세를 늘리고 교인을 확장하는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38)</sup> 이렇게 된 원인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공주의, 기복주의적인 사고가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준 것이다.

교회 성장과 관련된 ‘상품’에는 사람들이 몰린다. 정작 무엇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인지에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숫자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성장주의는 신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신학생이든 목회자이든 당장 교회 성장에 필요하다고 싶은 과목을 선호한다.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하나님은 누구신지와 같은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조직 신학이나 철학적 신학, 윤리학 등에는 별 관심이 없다.<sup>139)</sup>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관심은 단순히 양적인 성장에 집중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왜곡된 성장론의 허장성세에 매여 있음을 말해준다. 양적 성장이 곧 교회 성장이라는 논리가 공식화되어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양적 팽창이나 수적 성장이 곧 교회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도되어, 양적 성장이 곧 질적 성장을 동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sup>140)</sup>

교회의 양적성장은 결국 성장제일주의 가치관을 심어주었고 이것이 나아가 물량주의 가치관을 조장했다. 신앙기준을 물질로 삼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조성되었고, 숫자와 헌금이 교회평가의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 버렸다. 나아가 이것은 무교의 기복신앙의 영향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물질로만 이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순수한 질적 성장을 간과하게 하였다.<sup>141)</sup>

교회에 대한 성장 중심의 사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전도의 열정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교회성장론은 성장제일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성장’이란 용어로 설명함으로써 역기능적인 영향도 주었다. 즉, 성장이 교회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는, 소위 목적잔치(displacement of the goal)현상이 생겨나게 된다.<sup>142)</sup> 이것은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본

138) 장영식, *참교회의 표상을 세워라* (서울: 쿰란출판사, 2005), 70.

139)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92-93.

140) 장영식, *참교회의 표상을 세워라*, 81.

141) Jurgen Moltmann, *희망의 신학*,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49-50.

142)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4), 240.

질을 ‘성장’이라는 말로 희석시켜 버려 ‘성장’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인식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교회 성장은 개교회주의를 강화하게 만들었다. 개교회주의는 교회연합과 일치를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어낸다. 도시화로 인한 농촌교회의 심각한 쇠퇴는 도농간의 빈부격차가 교회에서도 심화되었고, 나아가 교회간의 계층갈등이 생겨나게 하였다. 지나친 성장 위주의 팽창주의는 분열의 빌미를 가져왔고, 신학교의 난립과 질적 저하를 낳았다.<sup>143)</sup> 결국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 4. 공동체성의 상실

어느 사회학도가 강남의 큰 교회들의 신앙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왜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큰 교회에 가면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작은 교회에 가면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 등 온갖 봉사를 해야 하는데, 큰 교회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다. 뒤에 앉아서 좋은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 되고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44)</sup> 이러한 생각은 믿음생활에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곳, 부담 없이 출석만 할 수 있는 곳을 찾겠다는 심리와 더불어,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공동체 생활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사고의 영향과 지칭학적으로 소위 ‘나’ 또는 ‘우리’ 라는 울타리 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심리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분명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이 넘치던 1세기 교회가 점차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은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 정착하면서 기구화 되고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기구화, 제도화 되면서 교회는 사회 변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고 그 대신 감독이나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권주의와 교조주의적인 정통교리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도 이와 다를 바 없다. 한국교회가 선교초기의 뜨거운 신앙의 열심과 선교적 열정을 점차 잃어가는 것은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교회가 기구화, 제도

143)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49.

144) 손봉호, *교상한 이기주의*, 97.



화 되고 본질을 상실한 채 기존의 사회질서 안에 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음속 깊은 곳,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고통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마음 편히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대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있지만 여전히 외톨이로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힘들게 만들었다.

##### 5. 교회와 기독교인의 부도덕성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여 졌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 칭송을 받으니...”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내에서는 기쁨을 갖고 서로 관대한 마음을 가졌고 밖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선행을 했다.<sup>145)</sup> 여기 ‘칭송’이라는 단어를 새번역에는 ‘호감’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호감이 가기 보다는 오히려 반감이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믿음과 행위의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루터의 교리가 행위를 배제한 배타적인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윤리적이고 깨끗한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인의 비도덕적 삶, 교회세습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비윤리성, 사회윤리의 취약성, 이웃을 섬기는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의 결핍 등이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요인들이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위가 “신자와 비신자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한다. 이는 기독교포털 갓피플닷컴이 2005년 12월20일부터 2006년 1월 6일 사이에 1,113명 가운데 636명으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또한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2006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교갱협 영성수련회 기간에 목회

145) F F. Bruce, *헨드릭슨 패턴 주석 사도행전* (상), 이용복, 장동민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8), 103.

자와 사모 등 331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99.4 퍼센트)은 한국 교회 교단에 갱신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으며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갱신 과제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로 85.5 퍼센트로 꼽았다.<sup>146)</sup>

한국교회의 부도덕성에 대해 손봉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탐관오리들이 교회가 있는 마을에는 책임자로 오지 않으려고 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고을에 가면 뇌물을 받을 수 없고 못된 짓을 못하기 때문이다. 당시 원님들은 조정애 가서 돈을 많이 주고 고을 원님 직함을 받았기에 내려가자마자 가렴주구 식으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많이 사는 고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 원님들도 오지 않으려고 했다.<sup>147)</sup>

목회와 신학에서 2008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우리나라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교회 및 출석교회의 정직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한국교회의 정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신교인을 상대로 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정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3.6퍼센트가 ‘그렇다(매우+약간)’라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28.1퍼센트로 나타났다. 그런데 불신자가 한국 교회에 대해 얼마나 정직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1.3퍼센트가 교회가 정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sup>148)</sup>

과거 5공 청문회시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들 중 상당수가 교회 직분자라는 것이 알려지자 비기독교인들로부터 교회의 윤리성과 신뢰성에 대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한국의 역사 속에 교회는 민족의 등불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했고 세상 속에 윤리적으로 좋은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명을 잃고 어둠의 뒤안길로 내몰리게 되었다. 인터넷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로 비아냥거리며 교회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내뱉고 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저변에는 바로 사

146) 문인현, *한국교회 그래도 희망은 있다* (서울: 크리스찬서적, 2007), 50.

147) 손봉호, *교상한 이기주의*, 72.

148) 신국원, “개신교인이 생각하는 한국교회 정직성에 대한 설문 조사 분석 및 평가,” *목회와 신학*, 2008년 7월호, 62.

회에 소금과 빛으로서 신뢰감을 주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가 부도덕성으로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 제 4 절 결론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수치심과 적대감, 외로움과 공허함, 열등의식, 조급성과 극단성, 그리고 성공주의가 건강해야 할 공동체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회·문화적 카테고리 속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와 윤리의식의 부재는 공동체의 하나 됨에 걸림돌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열강들 틈에 끼여 외세의 많은 침략을 받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불교와 유교, 토속 종교 속에서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정서를 형성해 왔다. 이모든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침투하여 세상을 주도하고 선도해 나가야 할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지배받는 현상이 일어났다. 교회의 세속화는 자연히 교회와 기독교인의 부도덕성을 가져왔으며 공동체 내에 약한 자, 병든 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를 위한 치유사역보다는 오로지 성장중심의 사역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제 한국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이다.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고통 받는 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이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약한 자, 고통가운데 있는 자를 위한 사역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교회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평신도 상담교육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제 4 장

### 건강한 교회를 위한 평신도 상담교육

3장에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하였던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평신도 상담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물론, 평신도 상담교육이 현재 산재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건강해야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기에 교회의 본질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개인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평신도 상담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1 절 평신도 상담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그레그 옥덴은 그의 책, *새로운 교회개혁 이야기*에서 “새로운 교회 개혁의 바람과 함께 사역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목사의 기본적인 역할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sup>149)</sup>고 주장하였다. 그의 말과 같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역을 교역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제도적인 모습의 교회에서 이제는 다양한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해 나가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평신도 상담교육은 교회의 유기체적인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절에서는 상담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49) Ogden, *새로운 교회개혁 이야기*, 125.

### 1. 상담교육의 의미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을 고집하기보다 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가치 안에서 서로 하나의 연합체가 되어가는 삶의 초대에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공동체의 삶이 있고, 상호간의 연합과 돌봄 및 사랑과 하나 됨의 역동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한다.<sup>150)</sup>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그를 성장하게 하고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써 자신 또한 돌봄을 받는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진지한 돌봄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관계성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핵심이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은 장수하고, 건강하며, 행복하다고 느낀다.<sup>151)</sup>

그러므로 교회가 치유를 위해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느낌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공동체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속감, 이 놀라운 사랑은 초대 교회로 하여금 생명력이 넘치게 하였고, 성령의 치유의 도구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로 불리울 수 있었다.<sup>152)</sup>

게리 콜린스는 상담에 대해서 말하기를 “상담은 성장과 인간을 돕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인격의 발달을 자극하려고 노력한다. 즉 개인들로 하여금 삶의 문제들, 내적인 갈등, 또 불안정한 정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상실이거나 실망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도한다. 또한 삶의 형태가 자멸적 이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sup>153)</sup>고 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적으로 연결되고 기능하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고전 12:26)라고 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돌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150) 유재성, *현대 목회상담학 개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110.

151)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172.

152) M. T. Kelsey, *치유와 기독교*, 배상길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6), 358.

153) Collins, *크리스찬 카운슬링*, 19.

이러한 관계를 통해 자기중심적인 경쟁과 거기에서 오는 실패와 좌절, 혹은 거절의 피해와 아픔에서 오는 상처와 불안, 단절감 등을 넘는 깊은 수용감과 안전감 및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다.<sup>154)</sup>

또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의 사역과 돌봄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이다. 상담은 예수의 몸 된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자도이며 치유 사역이기도 한 동시에 이웃의 아픔을 도와주기 위해 이웃을 찾아나서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 받고 다른 사람들과 깊고도 친밀한 수준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55)</sup>

목회에서 상담이란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돌보고 변화시켜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갖도록 하며, 변화된 성품을 통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되 자신의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게 하는 목회사역이다. 따라서 목회상담사역이란 성도들의 삶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도전하는 일이다.<sup>156)</sup>

전통적으로 교회의 돌봄사역 내지 목회상담은 한 개인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 개인의 문제를 돌보고 치유하는 개인적인 접근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적 관점에서 한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그 개인만의 것이 아니고, 그에게만 속한 문제도 아니다. 한 사람의 문제를 그 개인의 심리 내적인 갈등이나 가족 간의 역기능적인 요소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에게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는 그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에 함께 참여한 존재로서 그 문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돌봄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향해 수행해야 할 실제적인 과제이다.<sup>157)</sup>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역 가운데서 상담은 무엇보다도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회가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통해 돌봄사역을

154) 유재성, *현대 목회상담학 개론*, 111.

155) Stan E. DeKoven,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독교 상담*, 박이가 역 (서울: Grace 은혜출판사, 2005), 44-45.

156) 심수명,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상담목회* (서울: 다세움, 2008), 98-99.

157) 유재성, *현대 목회상담학 개론*, 112-113.

감당할 수 있다. 평신도 사역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멜빈 스티브론은 “하나님의 사역은 월급 받는 목사 직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사실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해내기 위해 충분한 많은 전담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교회는 대다수 하나님 사역(부서 일)이 어떠한 목양 돌봄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sup>158)</sup> 고 했다. 상담교육을 통해 훌륭한 평신도 상담자들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상담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다양한 상담 기술들과 감수성들을 활용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 적절한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게 함으로 자신들의 특수한 삶의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고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도록 돕는다.

## 2. 상담교육의 필요성

교회 공동체 안에는 치유와 회복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수치심과 외로움으로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실패를 통한 열등의식은 그들로 하여금 상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상처 입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행복해야 할 많은 부부들이 갈등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경쟁사회에서의 실패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의식을 느끼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윤리의식마저 잃어버렸다. 중년의 남성들은 사회에서 퇴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정과 평안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서로 결속되어 악한 충동을 소멸하도록 돕고 제어하기 힘든 부도덕한 충동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특히, 광야와 같은 시간, 끝없어 보이는 어둠의 긴 밤을 지내며 도무지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 자기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낮아지는 순간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sup>159)</sup>

성경을 보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 연약한 자가 있으면 치료하는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다. 깨어진

158) Melvin J. Stenbron, *평신도 목회자를 깨워라*, 홍용표 역 (서울: 이레서원, 2000), 123.

159) Crabb,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 262-263.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상처와 고통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의 고통 속에 들어가 치유의 손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측은히 여기는 심정(compassion, 함께 괴로워함)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며, 저주를 하고서도 기도를 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느라 갈급해 하며, 뜻있는 인간 관계를 그리워하는 그런 인간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목회와 상담’이야말로 “교회가 이런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도구”라고 주장하였다.<sup>160)</sup> 이에 대해 박근원은 이제 한국교회는 그동안 설교 위주의 교회였고 목회위주의 교회가 아니었으므로 설교만으로 충족되지 못한 우리 교회내의 목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161)</sup>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가정에서 자라나 진정한 교제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함께 지내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한다.<sup>162)</sup> 교회에서의 공동체적인 돌봄은 멤버들 간의 상호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치유와 성장을 가져오는 강력한 방법이다.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에게 속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는 그들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역동이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sup>163)</sup>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그들의 노여움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갈등 해소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갈등을 ‘다툼’이 아닌 ‘다름’이라고 이해하고 받아 들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로 하여금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 뿐만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는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sup>164)</sup>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돌봄의 능력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

160) Howard Clinebell,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1987), 29.

161) Ibid., 23

162)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역 (서울: 디모데, 2003), 195.

163) 유재성, 현대 목회상담학 개론, 114.

164) Margaret Zipse Kornfeld, 공동체 돌봄과 상담, 정은심, 최창주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3), 66-83.



에 싸여 있는 사람,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해 주며 그들이 자신들의 아픔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다.<sup>165)</sup> 그러므로 돌봄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며 수단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만 있는 놀라운 치유의 자원이다.<sup>166)</sup>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상담은 교회 내에서 교인들 상호간에 따뜻한 풍토를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회를 화해와 치유 그리고 성장의 장소로 만들어 준다. 또한 목회상담의 행위를 통하여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교회에 활력과 사랑의 힘을 회복시켜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로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 이러한 일들로 통해 교회는 전에 몰랐던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sup>167)</sup>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상담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상담을 통해 인간의 구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게 되고 인간의 삶에 대한 왜곡된 견해가 바로 잡아질 수 있다. 또한 상담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상담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상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도록 만들어 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족과 자녀 그리고 친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진다.<sup>168)</sup>

## 제 2 절 평신도 상담교육의 기본원리

상담교육은 개인들로 하여금 삶의 문제들, 내적인 갈등, 또 불안정한 정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상실이나 실망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도한다. 또한 삶의 형태가 자멸적이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165) 문미선, *상황적 치료를 통한 목회상담*, 27.

166) Ibid., 22.

167) 김병원,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성서대학교 출판부, 2003), 47.

168) DeKoven,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독교 상담*, 45-46.

들에게 도움을 준다.<sup>169)</sup>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눌린 자.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 교회는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질수 있다.

### 1. 상담교육의 목적

상담교육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외로움과 고통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상담교육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의 도움 가운데 상담을 수행하는 것이다. 상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으며, 공동체의 지원과 기도 속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평신도 상담교육의 목적이 있다.

#### 가.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절벽 밑에 앰블런스를 대기 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미리 절벽에 울타리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교회 사역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내레모어는 목회(기독교)상담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지적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맺도록 인도할 수 있다.

둘째, 인생의 의미에 대한 유일하고도 참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의 절대적 지침서로 활용한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한다.

다섯째, 죄와 죄책감에 대한 유일하고도 명확한 대답이 성경에 있

169) Collins, *크리스천 카운슬링*, 19.

다고 믿는다.<sup>170)</sup>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목회상담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방에는 개입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예방적 개입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예상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예방적 교육은 저항할 수 없는 난관을 예상하고 극복하여 피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sup>171)</sup> 그러므로 상담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내면을 이해함으로써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sup>172)</sup>

사실 모든 일에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다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방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도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격려해 주고, 다가올 일에 대해 경고해 주고,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문제를 직면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들과 잠재적인 문제를 상의하고 휴식이 앞으로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좋은 방법임을 강조하심으로 그들이 당할지도 모를 문제들을 예방해 주셨다.<sup>173)</sup>

기독교 상담에서 예방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방상담은 보통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일차적 예방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 상황을 예상하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피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예방상담은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문제를 사로잡거나 막으려고 시도한다. 이를 이차적 예방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발생하여 확대되고 있는 문제의 지속기간이나 심각도를 차단시키는 일을 포

170) 김병원, *목회상담학*, 58에서 재인용.

171) 심수명,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상담목회*, 114.

172) “상담목회로 다져진 건강한 목회적 토양, 구미교회,” *목회와 신학*, 2013년 5월호, 71.

173) Gary Collins, *훌륭한 상담자*,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162-163.

합한다.

셋째, 예방상담은 문제의 영향을 감소하거나 제거하려고 노력한다.<sup>174)</sup>

인간의 육신을 다루는 의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예방의학이라고 한다. 미리 예방이 잘 되면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상담교육은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미리 가르치고 알게 함으로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

#### 나. 문제의 근원에 집중하라

사람들은 환경가운데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자신이 처한 삶의 환경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이다. 그러므로 상담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가 과거에 뿌리를 두거나 미래에도 연결되지 않도록 자신이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개인적 문제와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알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상담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말이다. 예를 들어, 남대문에서 언쟁을 하고 그 시비를 동대문에 와서 가린다고 하면 그 정확성은 이미 사라질 수 있다. 문제의 초점을 남대문에 두어야 하는지 혹은 동대문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면 어렵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평등한 대우를 못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하며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견해를 지니고 있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sup>175)</sup>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출신, 직업, 삶의 환경, 신분, 성격 심지어 신앙의 깊이에 있어서도 다르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의 다르다는 것은 공동체

174) 심수명,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상담목회*, 128.

175) 방지형, *상담, 어떻게 할까요?* (서울: 쿰란출판사, 1994), 122.

안에서 상대방의 부족을 채워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질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으로 인해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작용하여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도출될 수 있는 원인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영속성이 있기에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원인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영속적인 원인이라 부른다. 이 말은 문제가 한 가지 이유에서 시작됐을지라도 또 다른 이유에 의해 계속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교인이 다른 교인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sup>176)</sup>

상담교육은 무엇보다도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진단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이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쓴 뿌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함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다. 건강한 상담사 양성

현대사회는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담해 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때에 상담을 도와 줄 평신도 상담자의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래리 크랩(Larry Crabb)은 “평범한 사람도 남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sup>177)</sup>고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멜빈 스텐브론(Melvin J. Stenbron)은 평신도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유형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하고,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하라고 했다. 이 말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데 있어서 이상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행적인 사람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sup>178)</sup>

초대교회에서 선출된 집사들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간해서 영혼을 돌보는 사도들의 협조자가 되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것으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 ‘공케를 일삼는’ 즉 상을 돌보는 사람들을 별도로 세운 것이다(행 6:1-6). 그들은 물질로만 도

176) 방지형, *상담, 어떻게 할까요?*, 126.

177) Crabb,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 74.

178) Stenbron, *평신도 목회자를 깨워라*, 191.

운 것이 아니라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왔다.<sup>179)</sup>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교회 안에는 잠자고 있는 좋은 일꾼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을 훈련시켜 동역자로 세워야 한다.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흔히 교회 일을 목회자들의 영역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안수 받은 목사만이 목회해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평신도들을 활용해야 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지만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에게 교회의 사역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평신도 상담자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멜빈 스타인브런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돌보는 은사를 받아서 사랑해 줄 수 있고, ‘함께 있기 위해’ 시간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이런 사역에 부름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sup>180)</sup>고 했다.

기독교 상담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의 도움 가운데 상담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상담사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의사가 건강해야 한다. 만약 의사가 병균에 감염되어 있다면 그 병균이 다른 환자에게 전염될 수 있다. 상담자도 마찬가지이다. 상담자가 영적으로 상한 심령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돌봐야 할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한 상담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다. 교회에서의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상담자나 내담자로 하여금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 보혜사 성령은 그 자신이 상담관계에서 궁극적인 상담자가 되시며, 상담자의 모델이 되신다. 그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

179) 방지형, *상담, 어떻게 할까요?*, 30.

180) Stenbron,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39.

해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목표하는 것 이상의 것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내담자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훌륭한 상담자가 가져야 할 덕목은 겸손이다.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고, 독선적이며,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공동체를 파괴한다.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며, 더 온화하게 해주는 기름 역할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덜 생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며 섬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sup>181)</sup> 교회 공동체가 상담교육을 통해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온전하고 건강한 상담자를 훈련시킴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다.

## 2. 상담교육의 원칙

교회는 전인적인 양육의 센터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일 중심으로부터 '인간 돌봄 중심의 목회형태'로 갱신해야 한다. 한 영혼 그 자체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목회스타일로 변형되어야 한다.<sup>182)</sup> 그러므로 상담교육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들을 도와서 당면 문제를 건설적으로 대처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감수하며, 자기와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지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표현과 경험,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감정과 태도, 또 자기 인식을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상담의 목적은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내세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희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상담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또한 상담은 삶에 용기를 주어야 한다. 상담을 통해 사람들은 삶에서 겪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 불필요한 죄의식, 억압감과 분노 등을 날려 보낼 수 있다.<sup>183)</sup> 그러므로 상담교육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속에 발생한 문제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든지,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뜬 구름 잡

181)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198-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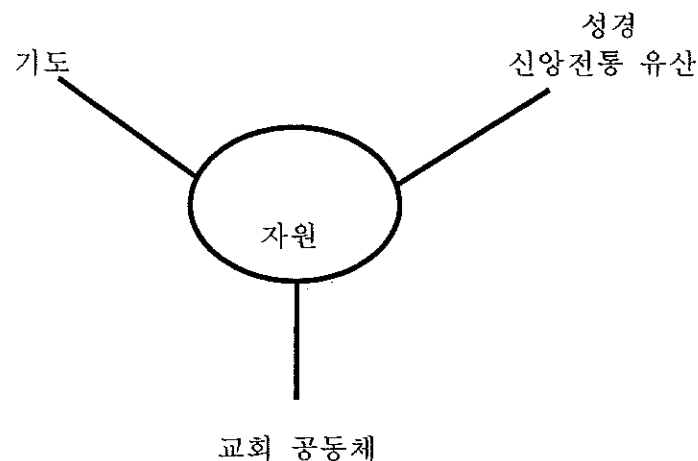
182) 설은주, *코이노니아와 신앙교육*, 85.

183) DeKoven,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독교 상담*, 48.

는 식의 대답이 아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심수명은 기독교 상담은 일반상담에서 가질 수 없는 3가지의 독특한 자원이 있음을 말했다. 첫째, 성경과 신앙전통 유산이 중요한 자원이다. 둘째, 기도가 중요한 자원이 된다. 셋째,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자원이 된다.<sup>184)</sup>

<그림 2> 기독교 상담의 자원<sup>185)</sup>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갈망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울고, 함께 놀며, 함께 나누고, 함께 공부하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길 원한다. 교회는 진정으로 인간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sup>186)</sup> 그러므로 상담교육은 교회 공동체가 돌봄의 공동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힐트너는 목회에서 상담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첫째는 사람의 훼손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치료하는 일이다. 둘째는 목회 대상자의 세속적 삶의 가치와 사고를 변화시키되 그의 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상태라도 유지하도록 격려하며 지탱시켜 주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184) 심수명,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상담목회*, 126-127.

185) Ibid.

186) 설은주, *코이노니아와 신앙교육*, 86.



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삶의 공허함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케 하여 결단의 삶을 살도록 도우며 인도하는 일이다.<sup>187)</sup>

게리 콜린스는 목회상담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목회상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을 권고하며, 영적 성장을 도우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도록 도우며, 그리스도의 표준과 태도 그리고 삶의 모습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며,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도전하는 일이다”<sup>188)</sup>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상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목회상담의 목적을 기준으로 상담교육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네 가지 효과적인 상담교육의 기본 원칙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경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지침서이다(딤후 3:16-17).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의미와 소망, 사랑에 대한 기본적 욕구나 갈등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 주신다.<sup>189)</sup> 그러므로 상담교육에 있어서 우선은 성경의 관점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상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담에 대한 이론들을 접목한다. 성경이 삶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해답을 제공해 주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상담에 대한 이론과 방법들을 교육해야 한다.

셋째, 상담교육으로 통해 참여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거나 제자로 훈련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상담교육을 통해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sup>190)</sup>

넷째, 상담교육을 통해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상담교육에 있어서 예방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상담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세울 때 단순히 개념정리 수준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재를 같

187) 김승년, *건강한 교회 이렇게 만든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112에서 재인용

188) Ibid., 112-113.

189)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미션월드라이브러리 편집부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7), 49-50.

190) Ibid., 51.

이 접목시켜서 효과적인 상담교육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상담교육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될 때 상담교육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

### 3. 교회에서의 상담사역

교회 공동체에서 상담은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적색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게 함으로 삶의 활력을 심어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상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치유와 함께 회복과 화해 등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시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 가. 성경적 원리에 집중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치유하시는 하나님(healing God)’이다(출 15:26).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이야기 할 때 심리적인 문제들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심리학적인 방법을 우선시한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참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

만약 인간의 치유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치유가 아니라면 그것은 마치 수술을 해야 할 사람이 그저 고통이 올 때마다 진통제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진통제는 단순히 순간의 고통을 잠재울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래리 크랩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 나오려면 우리 삶에서 가장 뿌리 깊은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생명을 식별하여 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sup>191)</sup>

교회 공동체에서 상담을 다루는 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바른 진리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래리 크랩은 “사탄이 잘 쓰는

191) Crabb,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 315.

전략 가운데 하나가 어떤 중요한 진리에 대해 사이비 모조품이 나타나게 한 다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 오류를 발견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오류를 피하려고 애쓴 나머지 모조품이 왜곡한 그 중요한 진리 자체를 놓치게 만든다. 인본주의가 그 좋은 예다. 인본주의 철학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그 선은 악보다 더 깊이 존재에 박혀 있으며 악이란 단지 악한 환경의 산물일 뿐이라고 가르친다”<sup>192)</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극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면 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인 것이다.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까닭이 바로 하나님과 결속되어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이다. 반면 이것이 끊어진 상태가 죽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간과 인간사이가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가장 온전하고 거룩한 관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교회는 관계성을 구현하고 관계를 맺는 중대한 의식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sup>193)</sup>

하버드 대학의 한 정신과 의사는 우리가 ‘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삶 속에 열두 가지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상, 직계, 가족, 친구, 공동체, 직장, 심미의 세계, 전통, 자연, 애완동물, 사상과 정보, 사회 그룹, 자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확립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sup>194)</sup>

기독교 상담은 궁극적인 삶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제기된 문제의 해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관계회복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즉, 기독교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있다. 내담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갖도록 인도하여, 기독교적인 가치관들, 삶의 자세들, 삶의 형태 등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92) Crabb,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 48.

193)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70.

194) Ibid., 173.

마르바 던(Marva J. Dawn)은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누구든지 사람에게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는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 한분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오직 그 분이 우리의 갈망, 그 분이 창조하신 그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다고 했다.<sup>195)</sup>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상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무조건 들어주고 심리학적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해주어야 한다.

#### 나. 교인들의 요청에 민감하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교육이 성경적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나 자칫 부인하기 쉬운 내면의 성향들을 탐구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담교육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만 적용하는 것을 남을 돕는 노력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도덕주의자 이상이 되기 어렵다.<sup>196)</sup> 기독교 상담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함께 다루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되어진다. 신앙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결혼상담, 노인상담, 직업상담 등 다양한 영역들을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가족치료, 내적치유 등의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아야 한다. 교회 안에 고통받는 지체가 있는데 내 지체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교회 밖으로 쫓아다니며 구제다 선교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sup>197)</sup> 제임스 민즈(James Means)는 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라는 책에서 목회자들이 선교 지향적 교회를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교 지향적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진력하지만 비선교적인 교회는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목회적 관심이 배제된 채, 오히려 도움을 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195) Dawn, *희열의 공동체*, 107-108.

196) Crabb,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 104.

197) 장영식, *참교회의 표상을 세워라*, 31.

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sup>198)</sup>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힘들어 하는 지체들이 있다. 독신자, 이혼자, 사별자, 노인,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장애인, 실직자, 침체에 빠진 자, 그리고 그 밖의 곤경에 처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비해서 거의 묵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구성원인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열린 마음으로 교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 문제와 사회, 문화적 다양한 환경들을 고려하고 교인들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 다. 소그룹으로 실시하라

성경에서 교회를 ‘가정’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함께 동그렇게 앉을 수 있는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보며 하나 됨의 기쁨과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야 한다.<sup>199)</sup> 소그룹은 작은 인원들이 모이는 것이기에 놀라운 역동성을 가지고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로베르타 헤스테네스(Roberta Hestenes)는 소그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인 모임이다.<sup>200)</sup>

이것을 토대로 소그룹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쉬운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소그룹이란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아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8) Means, 21세기에는 묵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195-196.

199) Bilezikian, 공동체 101, 72.

200)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18-19에서 제인용.

소그룹은 관계회복을 목적으로 하기에 소그룹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관계를 통한 소그룹은 치유를 동반함으로 결국 소그룹은 인간관계를 수정하고 치유하는 집단치유(group therapy)라는 성격을 갖게 된다.<sup>201)</sup>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열둘이라는 소그룹을 선택하셨고 그 중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더 작은 네 명의 소그룹을 선택하셔서, 그들 전부나 일부분의 중요한 사역의 순간마다 예수님 곁에 있게 하셨다(마 17:1; 막 5:37; 14:33; 요 13:23; 18:15; 20:2; 21:7, 20).<sup>202)</sup>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모임들이 깊이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동체는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뢰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의 상처, 필요 그리고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연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그룹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구성원들만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험담하지 않는 것이다.<sup>203)</sup> 그러므로 소그룹은 결혼생활과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의 용서와 치유, 그리고 화해의 사역은 이 세상에 퍼져있는 고통에 대해 긍휼을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때까지 발전하게 된다.<sup>204)</sup> 소그룹은 중보기도와 고백이 용서와 치유로 발전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원들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고통과 상처를 고려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내적 고통과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상처에 대해서 더욱 개방적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sup>205)</sup>

소그룹 사역에는 일반목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러 가지 사역적 특성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특성들을 크게 여섯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201) 추부길, *가정사역닷컴*, 17-18.

202) Bilezikian, *공동체101*, 72.

203)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201.

204) 설은주, *코이노니아와 신앙교육*, 158-159.

205) Ibid., 157.

첫째로, 소그룹은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한다.  
 둘째로, 각 개인에 대한 적절한 목회적 돌봄이 가능하기에 양질의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로, 상호 격려와 후원을 통해 성도 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준다.  
 넷째로, 구도자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전도와 빠른 정착을 도와준다.  
 다섯째로, 개인적 질문이 가능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일이 매우 용이하다.  
 여섯째로, 리더 양성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sup>206)</sup>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소그룹사역의 장점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 안에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교회가 세속화의 침투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오늘날 상황에서 소그룹의 효율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교육도 마찬가지다. 상담교육에 많은 무리가 참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소위 소그룹이라 할 수 있는 조별모임을 통해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강의를 통해 자신의 삶을 조명하게 되고 그 속에 느끼고 깨달은 사실과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소통함으로써 그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 제 3 절 상담교육과 교회공동체와의 관계

상담교육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왜냐하면 상담교육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 1. 상담교육을 통한 개인회복

사람들은 개인적 삶의 배경과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 노출되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받는 압박과 경쟁에서 승리라는 약육강식의 논리의 지배, 학연, 지연, 혈연 등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서 겪게 되는 상처도 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르지 않다.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이들을 건강하고 온전한

<sup>206)</sup> 김승년, *건강한 교회 이렇게 만든다*, 119-120.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으면서 살 수 없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또 받은 상처를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해소하고 치유하면서 살아간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내면을 지, 정, 의 세부분으로 나눈다면, 그 가운데 가장 상처를 잘 받는 부분이 감정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 정, 의 가운데 가장 예민하고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부분이 감정이기 때문이다.<sup>207)</sup> 감정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래서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현실적 문제는 관계의 장애이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어떤 여 집사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상처가 전혀 없었는데, 결혼하고는 상처가 많아졌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결혼과 남편에게 돌렸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그녀의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 잠복해 있었던 것이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가 맺어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가 결혼을 통해 남편과 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상처가 드러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건강에는 몹시 예민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정작 내면의 건강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고 삶의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이다. 배고플 때 밥 한 그릇은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또 한 그릇을 더 먹으면 행복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몸의 건강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은 부분적이다. 훨씬 많은 부분을 내면의 건강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투자하지만, 마음의 건강은 방치한다. 육신이 아프면 살려고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삶을 포기하기 싶어 한다. 상처의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치유이다.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두드러진 특징은 '이기적' 인 것과 '자기중심적' 이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함으로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비교적 안정된 가정에서 성숙한 부모로부터 사랑으로 건강하게 양육 받으며 성장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207) 유진소, *하나님 형상 회복*, 19.



갖게 된다. 이와 달리 부모로부터 거절당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수치감과 적대감이 생기고 그래서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질그릇과 같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깨어지고 심지어는 밑 빠진 독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깨어지고 금이 간 질그릇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이 넘치게 부어져도 소중하게 담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심령이 메마르며 공허함에 빠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빠져 들고야 만다.<sup>208)</sup>

교회는 그리고 모든 소그룹 안에는 적어도 한 명이상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특별히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정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버릇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더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할 수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sup>209)</sup> 사실 인간의 삶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대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문제 중심에는 ‘희망 없음’이 자리 잡고 있다.<sup>210)</sup>

하나님은 인간의 죄나 질병이나 사탄의 억압이나 세상의 악한 구조에만 관심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난들에 관심가지시고, 모든 고난들 때문에 장애를 받고 있는,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인간 그 자체이며,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상담교육은 공동체 안에서 삶의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또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에 금이 가고 상처 난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육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다.

208) 추부길, *가정사역닷컴*, 27-28.

209)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200.

210) 홍인중, *상담의 기초*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41.

## 2. 상담교육을 통한 가정회복

가족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혈연에 의해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 혹은 그 성원”<sup>211)</sup>이라 할 수 있다. 로널드 랭(Ronald D. Laing)은 가족을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져 일정기간 동안 함께 사는 사람들의 관계망”<sup>212)</sup>이라고 규정하였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태어난다. 가정은 사람이 태어난 후 최초로 자아와 인격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화(socialization)의 장이다.<sup>213)</sup> 그러므로 최초의 사회화가 일어나는 가정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상처가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은 사람들에게 ‘쓴 뿌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 즉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자매는 기쁨과 격려의 근원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은 또한 상처, 분노, 좌절, 폭력의 심한 긴장감이 도는 투기장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sup>214)</sup>

주계영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기를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해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의미를 지니는 자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지, 무엇 때문에 나를 선택해 그의 자녀로 삼으셨고 왜 내게 가정을 주셨는지?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한다.”<sup>215)</sup>고 했다. 다시 말해, 나의 육신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보면서 나의 영적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와 자매들의 인간관계를 보면서 믿음 안에서 가능한 믿음의 관계를 알게 되며, 혈육에 의한 서로간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용서의 삶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건강해야 할 보금자리이다. 가정이 건강해야 가족 구성원들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힘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위기를 당하고 있다. 많은 가정이 가정불화, 가정파괴, 별

211) 이소희 외, *현대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1998), 16.

212) Ronald D. Laing, *The Politics of the Family* (New York: Vintage Books, 1972), 3.

213) 이원규, *한국 사회 문제와 교회공동체*, 55.

214) Lowry L. Randolph and Richard W. Meyers, *갈등해소와 상담*, 전해룡 역 (서울: 두란노, 2002), 203.

215) 주계영, *결혼과 가정* (서울: 크리스찬 카운슬링, 2006), 67.

거, 이혼 등 위기에 처해있다. 평생을 함께 살고도 마지막에 황혼이혼을 하는 예도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다.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인격적 관계가 파괴되면 비인격적인 관계, 때로는 동물적이고, 때로는 물질적 관계로 변질된다. 특히, 부부관계는 더욱 그렇다. 부부는 어떤 관계에서보다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관계이며, 서로가 상대방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금해야 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오늘 가정 안에서는 아직도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부부관계로 인해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여인들이 많다. 오늘날 한국의 이혼률이 높아 가는 이유도 많은 부분 남편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을 보면서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가정이 그저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대화하며 삶을 나누는 공동체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사회풍조에 따라 성공주의에 빠져 부모는 부모대로 각종 모임으로 자녀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그나마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에도 대화하기는커녕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빠져있다. 그러다보니 가정은 그저 잠만 자는 여관 정도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런지 혹자는 집안의 가훈을 ‘얼굴 좀 보고 살자’로 정했다는 해프닝도 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은 마음이 든다.

다양한 가정의 문제는 비단 교회 밖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이 요청하는 내용이 가정에 관한 상담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문제, 수치심과 적대감, 외로움과 공허함, 열등의식 등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부모들의 잘못된 윤리의식과 성공주의는 자녀들로 하여금 잘못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교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나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교육함으로 가정이 더 이상 상처의 진원지가 아닌 기쁨과 평강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 3. 상담교육을 통한 공동체 회복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때,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갈등 그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갈등을 분쟁과 폭력으로 증폭시키기보다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sup>216)</sup> 공동체의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됨을 말한다.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됨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의 하나 됨은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요 17:20-23).

대형교회 현상이기는 한데, 교인들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피상적인 대화, 형식적인 대화만으로 그치게 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들어주는 귀, 지지하는 말, 관심 어린 마음이 서로를 얼마나 위로해 주며 격려해 주며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지 알 수 있다.<sup>217)</sup>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서신에서 반복하여 ‘서로’라는 말을 24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개인주의도, 집단주의도 아닌 상호 관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적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sup>218)</sup>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적인 삶을 지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이기심, 상처가 드러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어떤 고상한 개념이 아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곳이다. 험벗음과 연약함, 다른 사람들과의 함께 존재하지 못하는 제한성, 우리의 그칠 줄 모르는 욕망, 시기와 좌절, 그리고 우리의 미움과 파괴적인 요소 등이 숨김없이 쓰며 나오고 노출되는 곳이 곧 공동체의 현장이다.<sup>219)</sup>

신약에서 사탄은 ‘마귀(devil)’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진다. 이 말은 헬라어 ‘디아발로(diaballo)’에서 유래된 말로 ‘분리시키다’라는 뜻이다. 마귀는 나누고 분리시키며 공동체를 파괴한다.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을 사탄은 흩어 버린다.<sup>220)</sup> 오늘날 우리는 주변

216) 오상렬, “성도들 간 갈등을 목회자가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2012년 5월호, 69.

217) Larry Crabb and Dan Allender, *상담과 치유공동체*, 정동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1), 71.

218) 유재성, *현대 목회상담학 개론*, 114.

219) Ibid., 115.

에서 그렇게 신실하고 끈끈했던 인간관계들이 너무도 쉽게 깨지는 것을 많이 본다. 이것은 공동체가 얼마나 공격받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공동체를 분리하려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며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경하듯이 구성원 각자가 형제요, 자매로 존중받아야 한다. 공동체 내에서 약한 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것은 창조세계의 평안을 유지하고 삶을 오랫동안 풍요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sup>221)</sup>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견해이다. 십자가는 수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십자가에는 수평축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수평막대(crossbar)'라고 부른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의 품안에서 한 몸이 되길 원하신다.<sup>222)</sup>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화나 상처 혹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기 원하신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에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의 사랑이 너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켰다면,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너희에게 의미가 있다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우리의 능력이 영적인 성숙의 척도라고 가르쳤다(롬 15:5).<sup>223)</sup>

공동체 내에서 우정이 유지되려면 악의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인간의 성향을 다스려야 한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과 고백, 용서, 회개를 실천하는 영적 훈련이 공동체 생활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sup>224)</sup>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분명한 대안이 된 공동체가,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흘러 보내면, 사람들은 이 새로운 삶에 매력을 느끼고 생명의 길을 찾아 몰려들기 마련이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가르침을 실천

220) Bilezikian, *공동체101*, 66-67.

221) 설은주, *코이노니아와 신앙교육*, 72-73.

222) Bilezikian, *공동체101*, 41.

223)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205.

224) 설은주, *코이노니아와 신앙교육*, 73.

하는 살아 있는 공동체로서 세상을 변화시킨다.<sup>225)</sup> 공동체는 힘이 있다. 그것은 혼자서 이를 수 없는 연합에서 나오는 힘이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기에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많이 있다. 관계는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기쁘고 즐거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 그러나 관계가 역기능으로 작용하면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가 단절된 기형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교회에서의 상담교육은 이러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회복시킬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교회는 상담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 됨을 회복시켜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

#### 제 4 절 결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개인적 삶의 배경과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생각에 영향을 미쳐 잘못된 감정과 행동을 표출하게 되기도 한다. 감정과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과 행동을 소유한 사람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 관계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형식적이고 무늬뿐인 공동체로 전락시킨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환경과 관계로 인한 잘못된 신념과 생각을 올바르게 정립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대안으로 평신도 상담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평신도 상담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상담교육의 기본원리와 원칙, 교회에서의 상담사역에 대해서 논의했고 상담교육을 통해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 5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본 연구자가 섬기고

225) 김두식,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279.

있는 영락교회에서 실시한 평신도 상담대학을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제 5 장

## 영락교회 상담대학 운영의 실제 및 평가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평신도 상담교육은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돌봄과 섬김의 사역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영향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개인이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이다. 상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으로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며 모인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처 입은 자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영락교회에서 실시하는 평신도 상담대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평신도 상담대학의 운영

기독교 상담은 교회 중심적 사역이다. 즉, 기독교 상담은 교회의(of the church) 사역이며, 교회에 의한(by the church) 사역이며, 교회를 위한(for the church) 사역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고, 강건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인 측면까지 나아가는 상담이 되어야만 한다.<sup>226)</sup> 영락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평신도 상담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26) 이관직, “목회상담의 성경적인 기초,” 신학지남 (1995, 봄), 249.



## 1. 상담대학의 목표

영락교회 평신도 상담대학의 목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인 목표와 공동체적인 목표이다. 상담대학은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학습과 조별 나눔, 이어지는 실습을 통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고 나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만든다. 상담교육을 통해 개인의 내적 갈등을 줄여 주고 사장시켜 버린 삶의 에너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 자신의 내적인 생활과 관계의 역학적 작용에 대해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 가. 개인적 목표

영락교회 평신도 상담교육에 있어서 개인적 목표는 믿음과 삶의 여정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과 사람들로 인해 상처입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상담교육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나. 교회 공동체적 목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삶의 환경과 성격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므로 그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처들이 있다. 교회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유기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를 향한 돌봄과 섬김이 일어나야 한다. 상담교육은 성경을 기준으로 한 상담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섬김과 돌봄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영락교회 상담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슬로건이 있다.

“개인치유는 곧 평안과 소망입니다.”

“부부치유는 곧 신뢰와 사랑입니다.”

“가정치유는 곧 기쁨과 행복입니다.”

“교회치유는 곧 성장과 부흥입니다.”

## 2. 상담대학 개요

영락교회 평신도 상담대학은 기독교적 전통에 기초하여 상담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아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게 한다. 아래에서 영락교회 평신도 상담대학의 전반적인 개요부분을 다루도록 하겠다.

### 가. 참가대상

영락교회 평신도 상담대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영락교회 등록교인으로 55세 미만의 집사이상의 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교육공간과 여러 여건으로 인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고, 상담대학을 수료한 이후 상담부에서 전화 상담 봉사요원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신앙적 경륜과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령에 제한을 둔 이유는 평소에 객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나이가 들에 따라 주관적으로 훈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담부에서는 상담봉사요원으로 섬길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연령에 상관없이 집중코스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나. 교육기간

평신도 상담대학은 3학기제의 학습기간과 8시간의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기는 약 14주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시간은 매주일 2시에서 4시 30분 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고 있다.

### 다. 조직구성

영락교회는 교인들에 대한 신앙, 가정, 결혼, 건강, 직업 및 각종 법률문제 등에 관한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건강한 신앙회복을 위한 상담업무와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상담부를 두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부 전체 조직으로는 교역자(목사 1인, 전도사 2인)와 부서 임원들이 있고, 상담대학과 관련된 조직으로는 상담 교육팀 팀장 1명과 부팀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목회상담협회의 연계된 상담교육 담당 교수 1명(수퍼바이저)이 있다. 상담대학 학생의 정원은 학기별 60명 이내로 한다.

#### 라. 교육내용

교회에서의 상담교육은 기독교 전통과 성경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심리학을 무조건 수용, 배격하거나, 성경과 심리학을 아무런 기준이나 전제 없이 섞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담교육은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전제 위에서 심리학의 연구결과들을 분별력 있게 수용하여 통합해 가는 자세와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평신도 상담대학의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평신도 상담대학의 교육내용은 1학기는 일반 상담에 대해서 2학기는 가정 상담에 대해서 3학기는 특수상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일반상담: 기독교 상담개론, 전인건강, 대상관계, 심리역동, 발달심리, 집단상담, 상한마음과 내면치유, 교류분석, 상담방법론, MBTI

- 가정상담: 성경적 결혼의 원리, 가족상담의 원리와 실제, 성인아이와 역기능 가정, 관계회복과 의사소통, 중년과 노년상담, 성상담, 부모역할 훈련, 청소년과 부모상담, 가족치료, 이혼상담, DISC

- 특수상담: 전화상담, 인지치료1,2, 중독치료1,2, 정신병리1,2, 수치심과 분노치료, 우울증치료, 성상담, 청소년 정신건강, 애니어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시 강의 내용은 바뀔 수 있다.

### 3. 상담대학의 운영

영락교회는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로 인해 상처입고 지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해서 복음적인 신앙과 인격을 갖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평신도 상담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평신도 상담대학에 대한 홍보 및 인원 모집에서부터 진행되어지는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홍보 및 인원모집

평신도 상담대학은 매학기 48명에서 56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다. 이는 상담대학이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강의의 집중도와 소그룹모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홍보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모집하고 있다. 3학기로 진행되기에 이전 학기에 수료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다음에 진행될 과정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교회 주보와 만남지를 통해 홍보하고 세 번째는 교회 내 광장에 상담대학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한다. 그러나 이전 학기 수료자 가운데 약 70퍼센트가 신청하고 주보에 광고를 내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상담대학에 대한 반응이 좋다.

#### 나. 강사선정

상담대학의 강사선정 기준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상담대학 강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교회에서의 상담사역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상담은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야함으로 강사가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상담대학의 강사는 상담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 상담대학 강사는 교육할 내용에 대한 지명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검증된 강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사가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질 때 참여하는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

#### 다. 진행과정

평신도 상담대학은 3학기 과정으로 매학기 14주간 동안 3시간씩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14주간동안 참여하는 학생들이 강의에 충실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상담대학은 이를 위해 교육을 받기 전에 참여자들이 지켜야 될 기본 행동지침과 책임사항에 대해서 개회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소개한다.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참여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학생 가운데 찬양에 은사가 있는 사람과 반주자를 선정하여 교육시작 전 약 10분간 찬양을 한다. 이어서 담당교역자가 기도하고 강사를 소개한다. 강사는 준비된 교재를 가지고 강의

하고 중간에 휴식시간을 가지며 개별적으로 궁금했던 사항들은 휴식시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질문한다. 이어서 후반부 강의가 이루어지고 끝나면 조별모임을 갖고 마친다.

#### 라. 조별모임

상담대학은 한 조에 6명에서 7명 정도로 구성되어진 8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강의 시작 전 봉사자들에 의해 조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탁테이블이 준비되어 있고 테이블에 각 조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조별모임을 위해서 조장과 총무를 선정하고 조이름을 정한다. 뿐만 아니라 조별모임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강사가 정해준 주제를 통해 나눔을 갖는다. 학기마다 14주간 진행됨으로 조별모임을 통해 조원들 안에서 강한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이 생기게 된다.

#### 마. 상담실습

상담대학 참석자들은 상담대학의 모든 과정을 수료한 후 상담실습 시간을 8시간 가진다. 실습은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락교회 상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 상담에 함께 참여한다. 실습은 수료자들이 전화상담원 옆에서 힘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전화상담하는 내담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 봉사하는 상담원들이 실제적으로 겪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 줄 수 있다.

## 제 2 절 상담대학의 교재

본 절에서는 상담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필요성과 교재구성의 원리 및 교재의 주제와 평가를 다룰 것이다.

### 1. 교재의 필요성

교재는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교육생으로 하여금 이전 강의 내용을 복습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강의 내용을 예습할 수 있게 해 줌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또한 단기

적이고 일회적인 세미나 강의와는 달리, 일관성 있게 상담 분야 전체를 단계적이고 균형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매 학기 교육 단계에 맞는 교재를 발간하여 사용하고 있다.

## 2. 교재구성의 원리

상담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실제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실용성이고 두 번째는 상담대학의 권위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임상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성이다.

### 가. 실용성

상담교육에서 교재는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단지 교재의 내용이 이론만을 소개하거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기 때문에 교재는 무엇보다도 실제적이고 다양한 상담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 나. 전문성

상담대학 교재에는 상담의 각 영역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수진들의 강의 내용과 각 단계별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는 상담대학 교육이 전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임상결과들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상담대학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어준다.

## 3. 교재의 주제와 평가

상담대학은 사람들의 삶의 발달주기와 다양한 환경에 대해 교육해야 함으로 그 주제가 광범위하기에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효과적인 상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재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상담교육의 주제들을 소개해 본다.

### 가. 교재의 주제

상담대학의 교재의 내용은 1학기는 일반상담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성경적 상담이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사람들의 발달주기에 따라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2학기는 가정상담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위기의 가정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정은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다. 가정이 건강해야 그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2학기에서는 가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성경적 가정의 원리에서 시작하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교육이 진행된다. 3학기는 특수 상담분야를 다루고 있다. 특수 상담분야에서는 영락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화 상담에 대해 소개하고 특히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각종 중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 나. 교재에 대한 평가

시대가 급속히 변화함으로 문화도 함께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느낀다. 과거에는 종이에 기록된 문서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환경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교육환경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문서화 된 교재보다는 컴퓨터로 작업화 된 교육매체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집중도에 있어서 단순히 교재를 보면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컴퓨터 작업을 통해 실제적 영상과 자료로 만들어진 컴퓨터 교재가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제 3 절 공동체 회복을 위한 평신도 상담교육에 대한 평가

본 절에서는 영락교회의 상담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지를 회수하여 그것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 1. 설문조사

설문조사와 관계해서 설문 대상 및 사용한 도구와 설문 조사 방법 및 범위, 그리고 조사기간, 설문 자료 처리 방법 및 제한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가. 설문 대상 및 도구

본 연구자는 2013년 영락교회 상담대학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부록 1>에 있는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자료수집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 나. 설문조사 방법 및 범위

설문지는 참여자들에 대한 기본사항, 개인의 신앙성장과 상담에 대한 이해, 교회 공동체 회복에 대한 기여도,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제안이라는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본 논문에서 특별히 집중하고자 하는 항목은 3번 상담교육이 교회 공동체의 회복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 다. 설문조사 기간

설문지 작성: 2013년 11월 1일-11월 15일

설문지 조사: 2013년 11월 24일

2013년 11월 24일 주일 상담대학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53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여자가 70퍼센트 이상으로 많았으며, 30대가 1명, 40대가 10명 50대가 42명으로,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상담대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제한으로 인해 없었다.

### 라. 설문 자료 처리 방법 및 제한

회수한 설문지는 각 문항별로 항목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고, 반응빈도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설문결과 분석 및 정리

본 항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얻어진 응답에 대한 결과들과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상담교육과 교회 공동체성 회복과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하여 표를 사용할 것이다.



### 가. 일반사항

####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설문을 분석한 결과 영락교회 상담대학 교육생들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자(39명, 73퍼센트), 남자(14명, 27퍼센트)이다. 본 설문 조사에 응답한 성도는 여자의 수가 남자의 수보다 높다. 교인 전체 여성의 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본 설문조사는 남녀 구별이 크게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 (2)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나이에 관한 설문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해당 연령이 30~50대까지로 분포되어 있었고, 30대(1명), 40대(10명), 50대(42명)이라고 응답했다. 본 설문 조사에 응답한 인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79퍼센트를 차지한다.

#### (3) 당신의 직분은

상담교육에 참여한 성도들의 직분을 설문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권찰(1명), 집사(37명), 권사(15명)으로 응답했다. 상담대학 교육선발 대상 기준에 권찰 및 집사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 성도들은 없었고, 집사가 70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교회 내에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주일 예배 이후에도 기타 부서 및 봉사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본 상담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이미 본 상담대학 교육을 수료하여 상담현장이나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 (4) 당신의 최종학력은

교육생들의 최종학력에 관련된 설문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중 대졸(31명), 대학원 졸업 이상(12명), 고졸(10명)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육생이 81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미 상담 및 관련 교육을 학교나 다른 단체에서 수료한 사람들도 있었다.

#### (5) 상담대학 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교육생들이 상담대학 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개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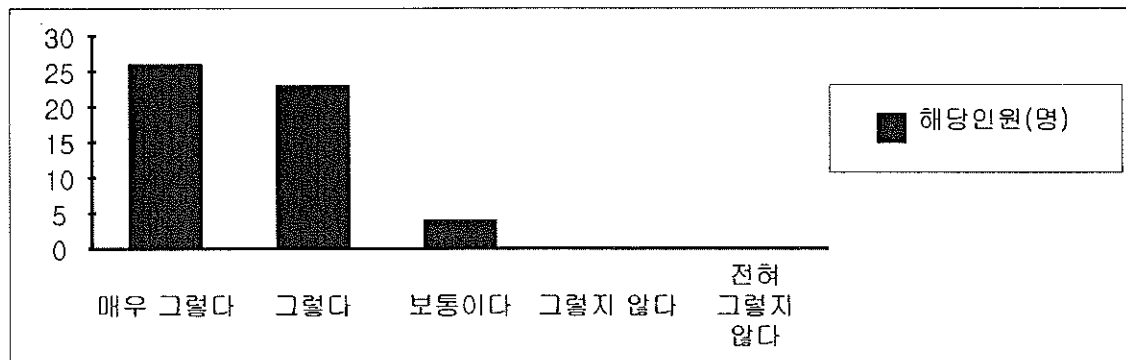
인 필요(33명), 참가 경험자의 권유(9명), 교역자의 권유(6명), 교회 후보 및 광고(5명)으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상담교육에 지원하게 되었다는 교육생이 62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이 결과로 볼 때, 상담대학 과정의 지원은 다른 사람의 권유 보다는 상담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기대가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개인의 신앙 성장과 상담에 대한 이해

(1) 상담대학 교육 과정이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상담대학 교육 과정과 자아 정체성 발견과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49퍼센트는 매우 그렇다(26명), 43퍼센트는 그렇다(23명), 8퍼센트는 보통이다(4명)라고 응답했다.

<표 1> 자아 정체성 발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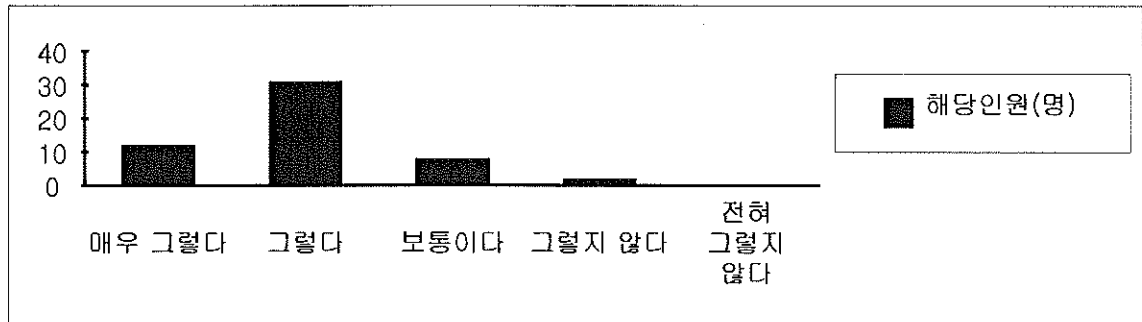


<표 1>에 따르면, 상담대학 교육 과정이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 90퍼센트 이상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는 상담대학 교육과정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 상담대학 교육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앙적 문제와 내면적 갈등의 원인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신앙적 문제와 내면적 갈등의 원인과의 관련에 대해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58퍼센트는 그렇다(31명), 23퍼센트는 매우 그렇다(12명), 15퍼센트는 보통이다(8명), 4퍼센트는 그렇지 않다(2명)로 응답했다.

&lt;표 2&gt; 신앙적 문제와 내면적 갈등의 원인과 관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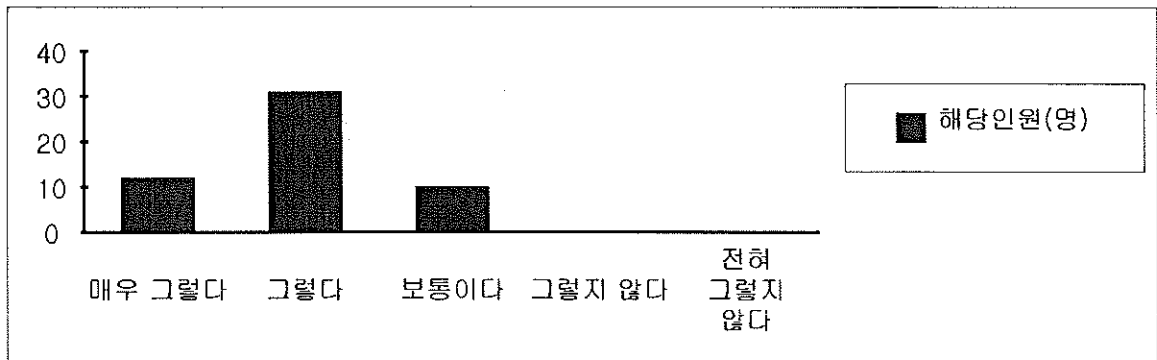


<표 2>에 따르면, 상담대학 교육생들 가운데 81퍼센트가 상담대학 교육과정이 신앙적인 문제와 내면적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상담대학 교육 과정이 자신의 신앙적 성장과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상담대학 교육 과정이 자신의 신앙적 성장과 회복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58퍼센트는 그렇다(31명), 23퍼센트는 매우 그렇다(12명), 19퍼센트는 보통이다(10명)로 응답했다.

&lt;표 3&gt; 신앙의 성장과 회복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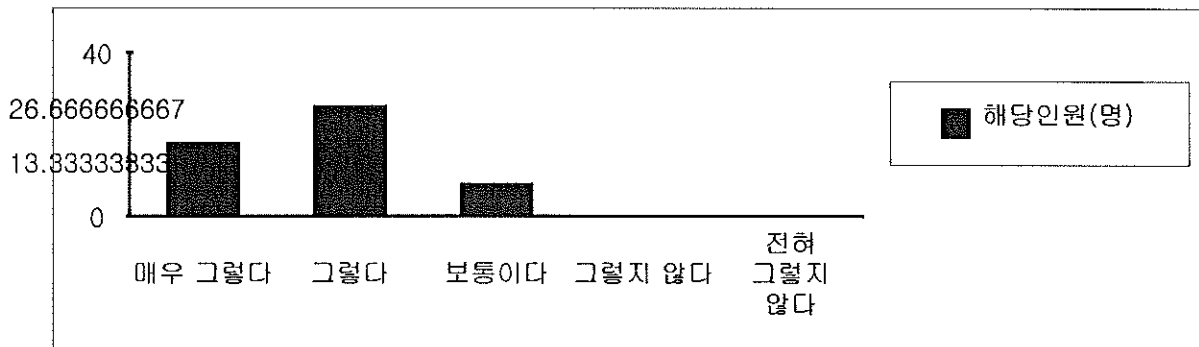
<표 3>에 따르면, 상담대학 교육생들 가운데 81퍼센트가 상담대학 교육과정이 자신의 신앙적 성장과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신앙적 성장과 회복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보편적인 견해는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상담교육 과정은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의 자아 정체성을 찾음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신앙적 성장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상담대학 교육 과정이 가족(부모, 자녀)을 이해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상담대학 교육 과정이 가족(부모, 자녀)을 이해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51퍼센트는 그렇다(27명), 34퍼센트는 매우 그렇다(18명), 15퍼센트는 보통이다(8명)로 응답했다.

<표 4> 가족을 이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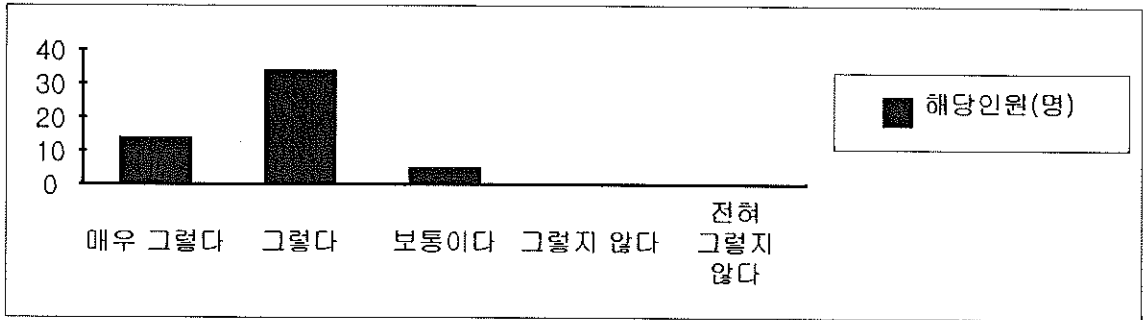


<표 4>에서 따르면, 상담대학 교육생들 가운데 85퍼센트가 상담대학 교육과정에서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상담대학 교육 과정 중 중요한 과목이 바로 가정 상담인데, 교육생들은 가정과 관련된 상담 교육을 통해 실제로 각자의 가정 안에서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용, 실천하고 있음을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5) 상담대학 강의를 통해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상담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상담대학 교육을 통해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상담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65퍼센트는 그렇다(34명), 26퍼센트는 매우 그렇다(14명), 9퍼센트는 보통이다(5명)로 응답했다.

<표 5>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상담 관련 전문적인 지식 습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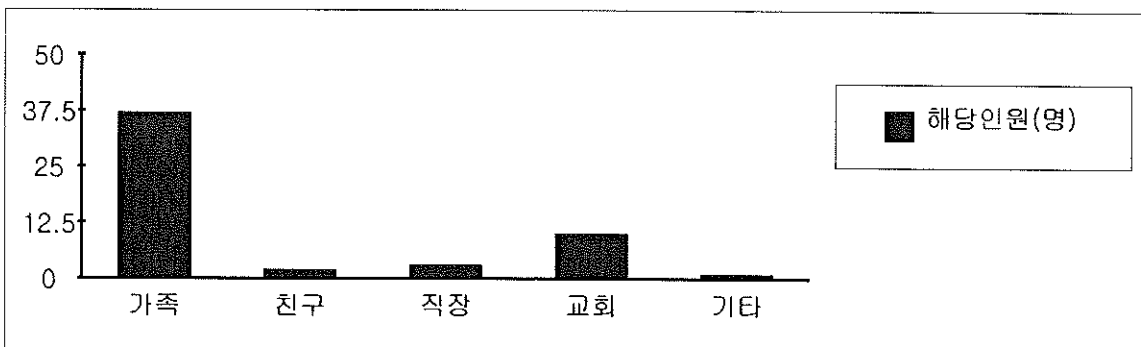
<표 5>에 따르면, 상담대학 교육생들 가운데 91퍼센트가 상담대학 교육과정이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상담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대학 교육생들의 상담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상담대학 교수진들은 국내외 상담관련 전문 교수 및 강사(상담학 박사학위 이상)로 상담 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질적인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 교회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

(1)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관계 가운데 공동체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담대학 교육생들에게 공동체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조직이나 관계에 대해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70퍼센트는 가족(37명), 19퍼센트는 교회(10명), 6퍼센트는 직장(3명), 4퍼센트는 친구(2명) 1퍼센트는 기타(1명)로 응답했다.

<표 6> 공동체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조직이나 관계



<표 6>에 따르면, 상담대학 교육생들 가운데 70퍼센트가 공동체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조직이나 관계를 가족으로 응답했다. 실제적으로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응답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설문에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70퍼센트)

- (1)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14명)
- (2)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므로(6명)
- (3) 함께 같은 목표의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1명)

교회(19퍼센트)

- (1)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3명)
- (2) 교회가 삶의 중심이므로(1명)

직장(6퍼센트) 하루의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므로(1명)

친구(4퍼센트) 친구가 가족과 교회보다 내 마음을 더 이해해 줄 때가 많다(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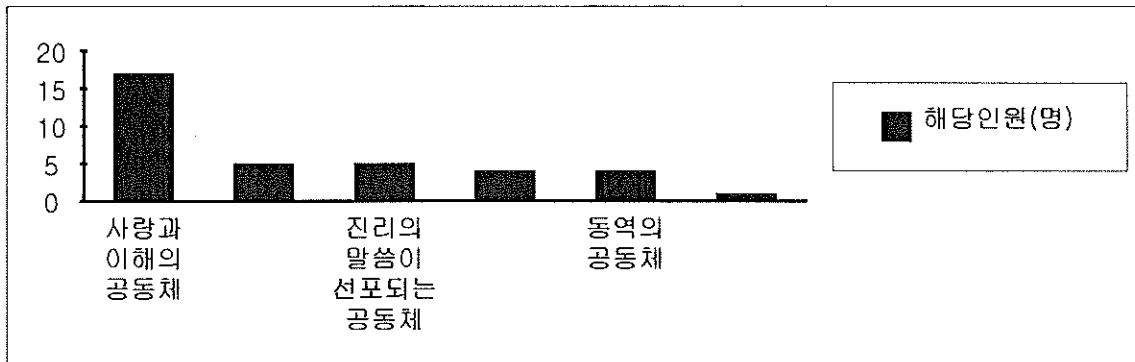
기타(1퍼센트)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온전하기 때문에(1명)

(2) 건강한 교회란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대학 교육생들에게 건강한 교회란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설문 분석 결과, 36명의 응답자 중 47퍼센트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17명), 14퍼센트는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공동체(5명), 14퍼센트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5명), 11퍼센트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4명), 11퍼센트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동역의 공동체(4명), 3퍼센트는 기타의견(1명)이었다.

기타의견에 응답한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공동체, 성도들의 은사와 자질에 맞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교역자와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등등이었다.

<표 7> 건강한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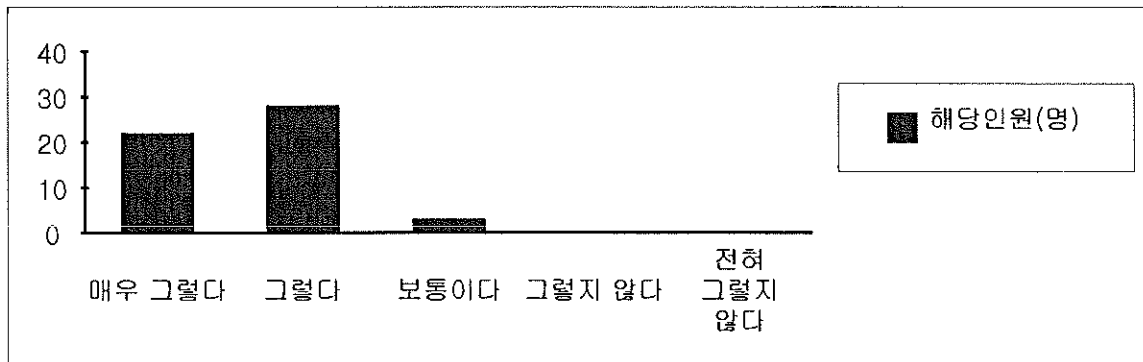


<표 7>에 따르면, 상담대학 교육생들 가운데 61퍼센트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랑과 이해, 배려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규모가 크고, 탁월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 지라도 건강한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 상담과 교육이 필요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 상담과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53퍼센트는 그렇다(28명), 42퍼센트는 매우 그렇다(22명), 5퍼센트는 보통이다(3명)로 응답했다.

<표 8>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평신도 상담과 교육의 필요성



<표 8>에 따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평신도 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95퍼센트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란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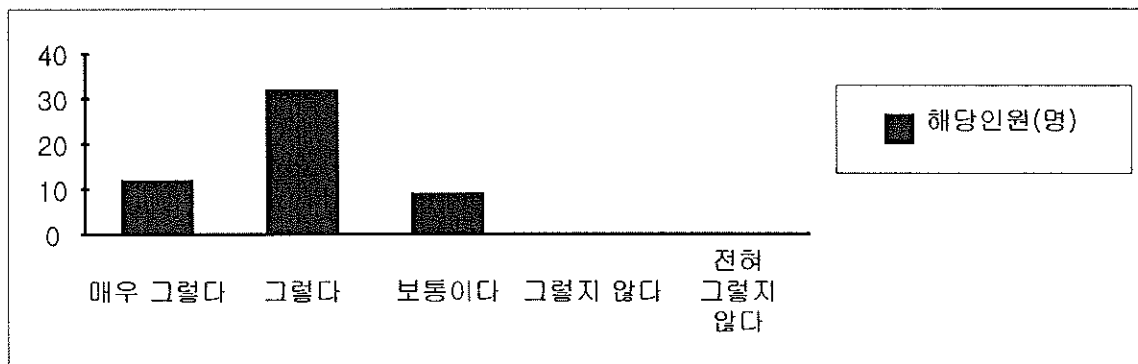


하고 이해하며,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앞선 2번 질문과 연관된 것으로, 이와 같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평신도 상담과 교육이 적극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상담대학 교육과정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상담대학 교육과정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의 설문 분석 결과, 60퍼센트는 그렇다(32명), 23퍼센트는 매우 그렇다(12명), 17퍼센트는 보통이다(9명)로 응답했다.

<표 9>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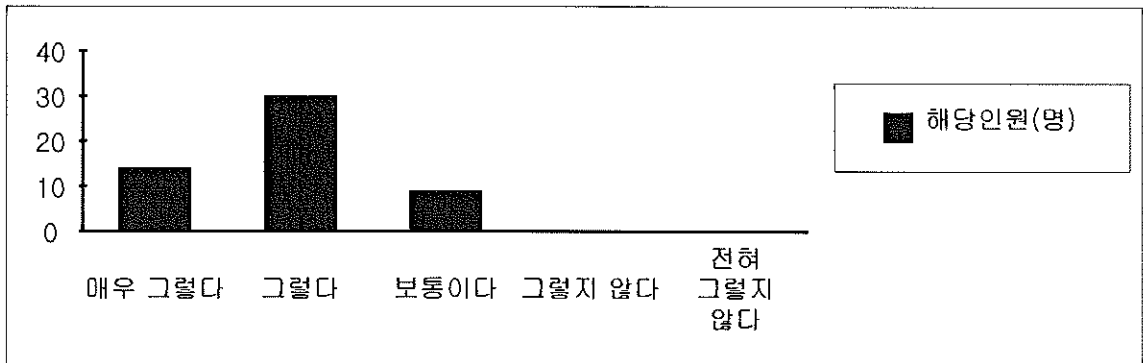


<표 9>에 따르면, 상담대학 교육 과정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 대해 83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상담대학 교육이 한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5) 상담대학 교육 과정이 현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상담대학 교육 과정이 현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57퍼센트는 그렇다(30명), 26퍼센트는 매우 그렇다(14명), 17퍼센트는 보통이다(9명)로 응답했다.

<표 10>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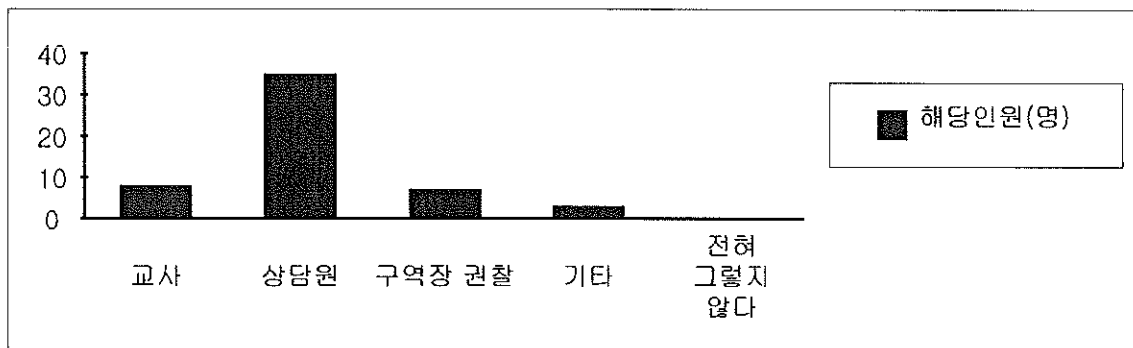


<표 10>에 따르면, 상담대학 교육생들 가운데 83퍼센트가 상담대학 교육과정이 현재 자신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다. 상담교육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6) 상담대학 교육 과정 수료 이후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종류의 사역과 봉사를 하고 싶습니까

상담대학 교육 과정 수료 후 교회에서 어떤 종류의 사역과 봉사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66퍼센트는 전화상담원(개인, 신앙, 가정 상담 관련)(35명), 15퍼센트는 교회학교 교사(8명), 13퍼센트는 구역장, 권찰(7명), 6퍼센트는 기타(3명)로 응답했다.

<표 11> 수료 후 교회에서 어떤 종류의 사역과 봉사를 하고 싶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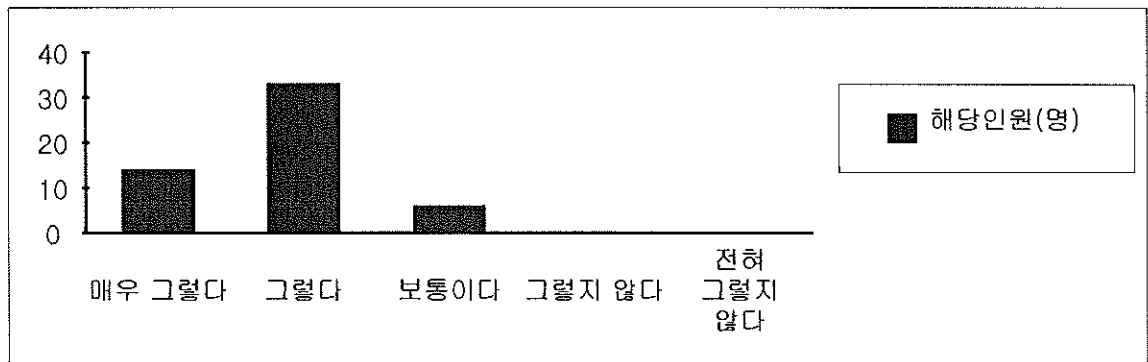


<표 11>에 따르면, 상담대학 교육생들 가운데 66퍼센트가 상담대학 교육 과정 수료 후 전화상담원(개인, 신앙, 가정 상담 관련)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들도 직접적인 상담원 사역이 아닐 뿐, 교회학교 교사와 구역장, 권찰 역시 학생들과 구역에 속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이해하며 상담하는 상담관련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7) 상담대학 교육 과정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대학 교육 과정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63퍼센트는 그렇다(33명), 26퍼센트는 매우 그렇다(14명), 11퍼센트는 보통이다(6명)로 응답했다.

<표 12>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도움



<표 12>에 따르면, 상담대학 교육생들 가운데 89퍼센트가 상담대학 교육과정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앞선 6번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상담대학 교육 과정을 받은 수료생들이 상담원, 교사, 구역장 권찰로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봉사자들이 배출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담대학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됨(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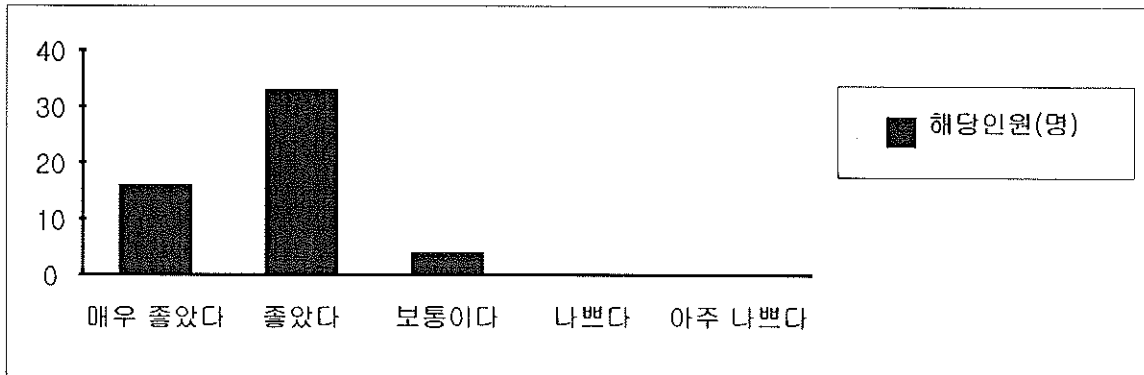
- 내면의 깨달음과 자아 성장(8명)
- 공동체를 보는 시야가 넓어짐(6명)
- 깊은 교제와 나눔의 장이 됨(1명)
- 교육을 통해 가정과 구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1명)

#### 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제안

##### (1) 상담대학 강의 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담대학 교육생들에게 상담대학 강의 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62퍼센트가 좋았다(33명), 30퍼센트가 매우 좋았다(16명), 8퍼센트가 보통이다(4명)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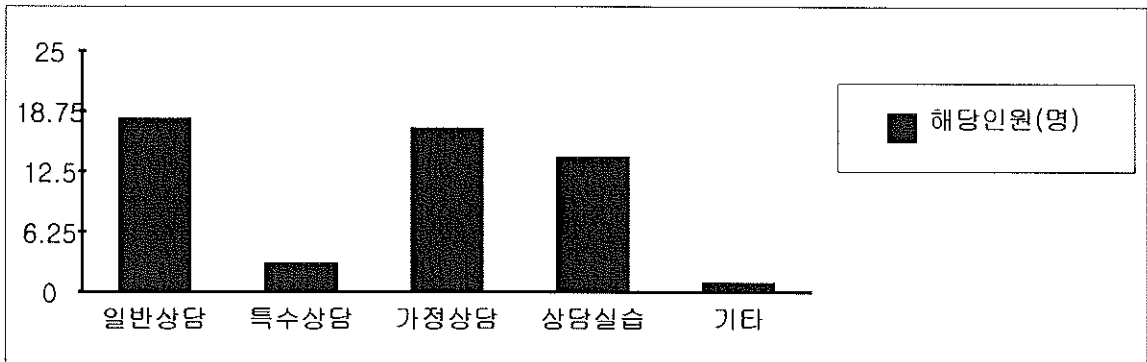
<표 13> 상담대학 강의 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 (2) 상담대학 교육 과정 중 가장 관심과 흥미가 있었던 분야는 무엇입니까?

상담대학 교육생들에게 상담대학 교육 과정 중 가장 관심과 흥미가 있었던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34퍼센트가 일반상담(18명), 32퍼센트가 가정상담(17명), 26퍼센트가 상담실습(14명), 6퍼센트가 특수상담(3명), 기타 2퍼센트(1명)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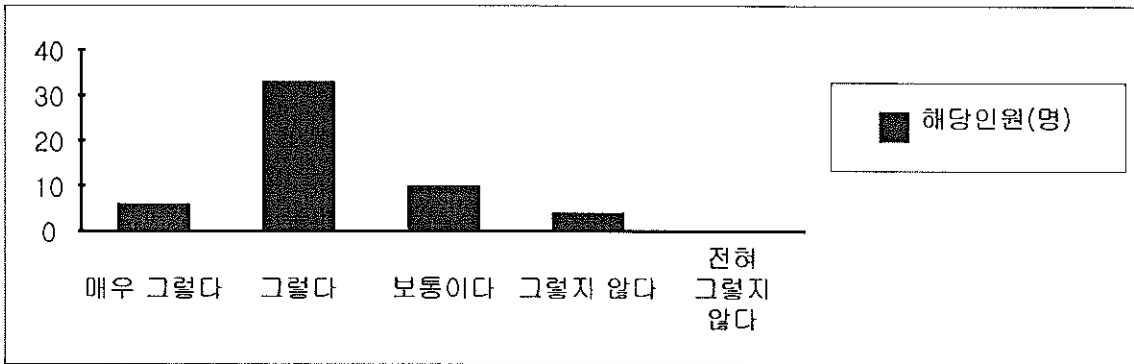
<표 14> 교육 과정 중 가장 관심과 흥미가 있었던 분야



(3) 교육기간과 환경, 강사진과 교육 인원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대학 교육 과정의 교육기간과 환경, 강사진과 교육 인원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62퍼센트는 그렇다(33명), 19퍼센트는 보통이다(10명), 11퍼센트는 매우 그렇다(6명), 8퍼센트가 그렇지 않다(4명)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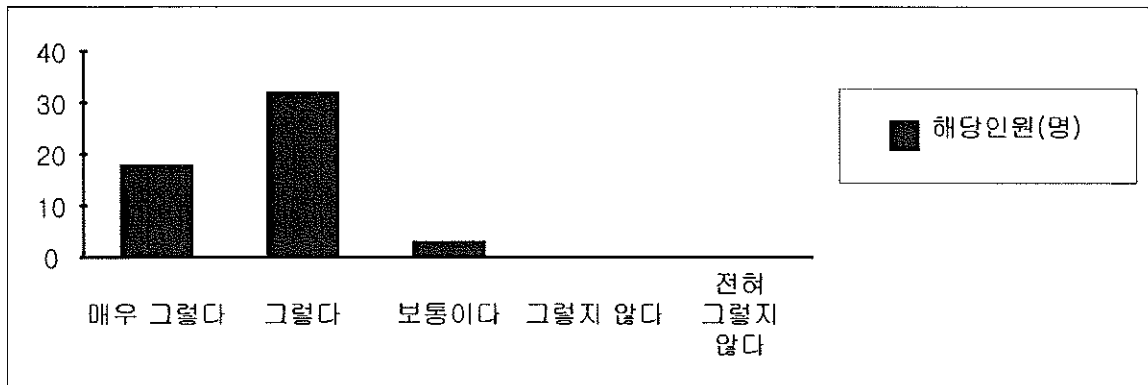
<표 15> 교육기간과 환경, 강사진과 교육인원에 대한 적절성



(4) 여러분이 받은 상담대학 교육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담대학 교육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60퍼센트는 그렇다(32명), 34퍼센트는 매우 그렇다(18명), 6퍼센트는 보통이다(3명)로 응답했다.

&lt;표 16&gt; 상담대학 교육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5) 상담대학 교육과정 가운데 바라는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이 다 받을 수 있도록(4명)

감사합니다(4명).

상담에 대한 기본 내용, 용어를 좀 더 교육했으면(3명)

강의실이 너무 좁다(3명).

과정이 너무 길고, 출결 사항이 엄격해서 교회 봉사 및 활동에 지장이 됨(2명)

상담교육 실습에 대한 전문성 보강

이론과 실습에 대한 병행 교육이 더 잘 이루어졌으면

교육 내용을 나중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 주었으면

가정 상담에 대한 집중적 과정이 필요함

좀 더 상담의 여러 분야들을 다루었으면

단계별 상담교육 과정을 세분화 했으면

### 3. 설문결과에 따른 대안

#### 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가르치라

건강한 공동체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연합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앙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의 공동체이다. 마치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sup>227)</sup>

상담대학에 참여한 교육생들에게 건강한 교회란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상담대학 교육생들 가운데 61퍼센트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랑과 이해, 배려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규모가 크고, 탁월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진정한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하나 됨과 서로간의 하나 됨을 경험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관계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독특하며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sup>228)</sup>

건강한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통해서 고통스런 삶의 문제를 극복한 자들이 비슷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그들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극복하는데 조언과 내면적인 이해와 실제적인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방관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들의 모임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삶을 나누며 아파하는 지체가 있다면 신앙으로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나라 구현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227) 장영식, *참교회의 표상을 세워라*, 21.

228) Andy Stanley and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이중순 역 (서울: 디모태, 2006), 45.

### 나. 교인들의 필요에 민감하라

평신도 상담교육은 성도와 성도와의 깊은 인간관계를 개발하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성도들끼리도 서로의 기도제목을 공개하고, 자신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내어놓기가 힘든 분위기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평신도 상담사역이 활발해 지면 교육을 통해 서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먹서먹한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마비된 교회 공동체에 힘을 불어넣어 주게 된다. 깊은 인간관계 형성은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함께 나눌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평신도 상담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서로가 공동체로서 한 몸임을 확신케 되는 계기가 된다.<sup>229)</sup>

설문조사 가운데 “상담대학 교육 과정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83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상담대학 교육이 한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담대학 교육생들 가운데 83퍼센트가 상담대학 교육과정이 현재 자신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담교육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상담교육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역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이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게 되고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인격적인 하나님께 의지하여 개인의 삶의 중요성과 안정감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에 목적을 두고 교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한다.

229) 정인숙, “평신도 상담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상담훈련 프로그램 연구” (Th. M.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2001), 31.



다. 상담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라

상담대학 교육생들 가운데 81퍼센트가 상담대학 교육과정이 자신의 신앙적 성장과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신앙적 성장과 회복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보편적인 견해는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상담교육 과정은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찾음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신앙적 성장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평신도 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95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상담대학 교육생들 가운데 89퍼센트가 상담대학 교육과정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담대학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자신의 문제를 철저히 숨기며 살고 있다. 교회공동체는 치유하는 교회로서 신뢰를 얻어야 하며 공감하고 용납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안전해. 여기서 치유를 받아' 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나아가 병들고 상처받기 보다는 건강하고 온전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sup>230)</sup>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적 행복 추구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기본 욕구가 억압되어 사회적 불안과 개인적인 불만이 고조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전체 자원을 활용하여 교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상담대학 교육이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제 4 절 결론

230) Doug Murren, *치유하는 교회*, 심영우 역 (서울: 홍성사, 2002), 49-62.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의 틀을 갖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의 틀이 자기중심적이고 편협적일 수 있다. 평신도 상담훈련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된 사고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본 장에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대안으로서 영락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신도 상담대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상담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개인적 목표와 교회 공동체적 목표를 시작으로 상담대학의 개요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상담대학이 보다 실용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 사용하는 교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어서 상담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대학 교육이 공동체 회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도표화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상담대학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 사역하고 있는 봉사현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상담대학이 공동체에서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사역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결과를 통해 나타난 사실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인격적인 하나님께 의지하고 개인의 삶의 중요성과 안정감을 얻도록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는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상담대학이 개인과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지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제 6 장 결 론

공동체 안에는 힘이 있다. 그것은 연합하는 힘이다.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사람들의 삶속에 들어가는 힘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영혼과 접촉하는 힘이다.<sup>231)</sup>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야 한다. 공동체의 건강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하나하나가 건강할 때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경받고 칭송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 추억속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제 한국교회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갖고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공동체의 건강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신도 상담교육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왜냐하면 상담교육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상담교육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배경과 환경으로 마음에 금이 가고 상처 난 사람들이 치유

231) Crabb and Allender, *상담과 치유공동체*, 239.

와 회복을 경험하고 세속화의 물결 속에 소통이 단절되고 가치관의 차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인과 가정이 건강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교회 공동체가 반목과 갈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장에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 회복에 있음을 밝혔다.

2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기록한 사도행전과 공동체의 신학적 기반을 담고 있는 바울서신을 통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소통하는 공동체이다. 서로 다양한 환경과 위치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로 통일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에 건강한 공동체는 생명력 있는 살아 있는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는 공동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의 비전이 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다.

3장에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한국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인주의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카테고리 속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와 윤리의식의 부재, 열강들 틈에 끼여 외세의 많은 침략을 받는 지정학적인 환경, 불교와 유교, 토속 종교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형성된 독특한 정서가 한국교회에 침투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지배받는 현상이 일어났다. 교회의 세속화는 자연히 교회와 기독교인의 부도덕성을 가져왔으며 교회는 성장 중심의 사역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4장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한 대안으로 평신도 상담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평신도 상담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상담교육의 기본원리와 원칙, 교회에서의 상담사역에 대해서 정리했고 상담교육을 통해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상담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로 영락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신도 상담대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평

신도 상담대학의 운영과 상담대학의 교재에 대해 살펴보았고 실제로 상담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대학 교육이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도표화하여 정리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준비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공동체 회복을 통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평신도 상담교육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상담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고 나아가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있어서 적절하다. 그러나 상담대학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다. 우선 교회에서는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으로 상담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역자, 임원, 봉사자 등의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지원과 재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외형적인 성장 중심의 사역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공동체의 내적인 건강성을 추구해야 한다. 상담교육은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담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인들의 내면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힘들어 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한다. 개인이 건강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 한다.

## 부록

## 영락교회 상담대학 교육생 설문조사

먼저 설문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영락교회 상담대학 과정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담교육 과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교육에 반영하고, 이러한 상담교육이 개인의 신앙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본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여성(     ), 남성(     )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직분은?

① 권찰    ② 집사    ③ 권사    ④ 장로    ⑤ 직분 없음

4)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이상

5) 상담대학 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 ① 교회 주보 및 만남지 광고    ② 교역자의 권유    ③ 참가경험자의 권유  
④ 개인적인 필요    ⑤ 기타

2. 개인의 신앙 성장과 상담에 대한 이해

1) 상담대학 교육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아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상담대학 교육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앙적 문제와 내면적 갈등의 원인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상담대학 교육과정이 자신의 신앙적 성장과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상담대학 교육과정이 가족 관계(부모, 자녀 등)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강의를 통해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상담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교회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

1)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상담대학의 교육 과정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상담대학의 교육 과정이 현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상담대학 교육과정 수료 이후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종류의 사역과 봉사를 하고 싶습니까?

① 교회학교 교사 ② 전화상담원(개인, 신앙, 가정 문제) ③ 구역장, 권찰 ④ 기타

5) 귀하는 건강한 교회란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



---



---



---

6) 상담대학의 교육 과정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



---

4.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제안

1) 상담대학 강의 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좋았다 ② 좋았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아주 나쁘다



2) 상담대학 교육 과정 중에 가장 관심과 흥미가 있었던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일반상담 ② 특수상담 ③ 가정상담 ④ 상담실습 ⑤ 기타

3) 교육기간과 환경, 강사진과 교육 인원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여러분이 받은 상담대학 교육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상담대학 교육과정 가운데 바라는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귀한 응답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참고 문헌

## 1. 국내서적

- 감리교 목회상담센터. *한국문화와 목회상담*. 서울: 목회상담, 2003.
-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성남: 도서출판 브니엘, 2006.
- 고홍화. *한국인의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1989.
- 금장태. *유학사상의 이해*.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 \_\_\_\_\_.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1.
- 김경수. *회복*. 서울: 배드로서원, 2010.
- \_\_\_\_\_. *상처의 회복*. 서울: 예루살렘, 2004.
- 김두식.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서울: 홍성사, 2010.
-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 김병원.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성서대학교 출판부, 2003.
- 김병오. “수치심에 대한 목회신학적 이해.” *목회와 신학*. 2013년 5월호.
- 김상현. *전도 중심교회*. 서울: 프리셋트, 2006.
- 김승년. *건강한 교회 이렇게 만든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 김준수. *마음의 치유*. 서울: 디모데, 2006.
- 김홍찬. *수치심 치유 지침서*. 서울: 한국기독교 상담연구원, 2007.
- 목회와 신학 편집부. “10년 후 한국 교회 설문조사 결과 분석.” *목회와 신학*. 2009년 7월호.
- \_\_\_\_\_. “상담목회로 다져진 건강한 목회적 토양, 구미교회.” *목회와 신학*. 2013년 5월호.
- 문미선. *상황적 치료를 통한 목회상담*. 서울: 하나의학사, 2006.
- 문석호. *한국교회의 공동체 운동*. 서울: 도서출판 줄과추, 1998.
- 문인현. *한국교회 그래도 희망은 있다*. 서울: 크리스찬서적, 2007.
- 박동현. *예언과 목회I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박봉진. *치유와 회복*. 서울: 콤파출판사, 2009.

- 박일영.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 왜관: 분도출판사, 2003.
- 박창환. *신약성경해설*.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1990.
- 방지형. *상담, 어떻게 할까요?*. 서울: 콤파출판사, 1994.
- 서재생. *목사님도 모르는 교회 안에 무속신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
- 설은주. *코이노니아와 신앙교육*.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 손봉호. “한국교회와 개교회주의, 그 문제와 대책.” *목회와 신학*. 1995년 3월호.
- \_\_\_\_\_. *고상한 이기주의*. 서울: 규장, 1998.
-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IVP, 1996.
- 신국원. “개신교인이 생각하는 한국교회 정직성에 대한 설문 조사 분석 및 평가.”  
*목회와 신학*. 2008년 7월호.
- 신동식. “교회 직분과 돈.” *목회와 신학*. 2011년 11월호.
- 심수명.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상담목회*. 서울: 다세움, 2008.
- 오상렬. “성도들 간 갈등을 목회자가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2012년  
5월호.
- 윤평어문연구소. *그랜드 국어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1992.
- 원형갑. “기독교와 샤머니즘.” *기독교 사상*. 1974년 4월호.
- 유재성. *현대 목회상담학 개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 유진소. *하나님 형상 회복*. 서울: 두란노서원, 2003.
- 윤승중. “사도행전적 건강한 교회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9.
- 이관직. “목회상담의 성경적인 기초.” *신학지남* (1995 봄).
-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3*. 서울: 신원문화사, 1983.
- 이소희외. *현대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1998.
- 이숙중.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4.
- \_\_\_\_\_. *한국 사회 문제와 교회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이케하라 마모루. *한국·한국인 비판*. 서울: 중앙M&B, 1999.
- 장영식. *참교회의 표상을 세워라*. 서울: 콤파출판사, 2005.

- 정인숙. “평신도 상담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상담훈련 프로그램 연구.” Th. M. 학위논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2001.
- 조남욱 외. *현대인의 유교읽기*.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5.
- 주계영. *결혼과 가정*. 서울: 크리스찬 카운슬링, 2006.
-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1997.
- \_\_\_\_\_. *한국인에게 문화가 없다고?*. 서울: 사계절출판사, 2000.
- 추부길. *가정사역닷컴*. 서울: 한국가정사역연구소, 2002.
- 한백연구재단. *21세기 한국과 한국인*. 서울: 삼성출판사, 1993.
- 한신대학교학술원신학연구소. *한국인의 문화의식 조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 한창수. *대한민국 다시 읽기*. 서울: 알타미라출판, 2010.
- 홍인중. *상담의 기초*.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 2. 번역서적

- Banks, Robert.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문, 1991.
- Barclay, William. *바울신학개론*.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 Bilezikian, Gilbert. *공동체 101*.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 Bonhoeffer, Dietrich. *기독교 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Bright, John. *하나님 나라*. 박일영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6.
- Bruce, F F. *헨드릭슨 패턴 주석 사도행전 (상)*. 이용복, 장동민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8.
- Clinebell, Howard.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1987.
- Collins, Gary. *훌륭한 상담자*.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_\_\_\_\_. *크리스찬 카운슬링*. 피현희, 이해련 역. 서울: 두란노, 1984.
- Crabb, Larry.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 이주엽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2.
- \_\_\_\_\_.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김명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3.

- \_\_\_\_\_ and Dan Allender. *상담과 치유공동체*. 정동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1.
- Dawn, Marva J. *희열의 공동체*. 이종태 역. 서울: 도서출판 북 있는 사람, 2004.
- DeKoven, Stan E.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독교 상담*. 박이가 역. 서울: Grace 은혜출판사, 2005.
- Dever, Mark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 Dilenberger, John. *루터저작선*.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Fee, Gordon.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길성남 역. 서울: 좋은 씨앗, 2001.
- Frost, Michael. and Alan Hirsch. *새로운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 IVP, 2009.
- Hemphil, Ken S. *복음전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안디옥교회*. 이명희 역. 서울: 서로사랑, 2007.
- Jeremias, Johakim. *신약신학*. 정충하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6.
- Kelsey, M. T. *치유와 기독교*. 배상길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6.
- Kornfeld, Margaret Zipse. *공동체 돌봄과 상담*. 정은심, 최창주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3.
- Küng, Hans.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Means, James. *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배현석, 김웅국 역. 서울: 나침반, 1997.
- Moltmann, Jürgen. *희망의 신학*.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Murren, Doug. *치유하는 교회*. 심영우 역. 서울: 흥성사, 2002.
- Ogden, Greg. *새로운 교회개혁 이야기*. 송광택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8.
- Peace, Richard V. *신약이 말하는 회심*. 김태곤 역. 서울: 좋은 씨앗, 2001.
- Randolph, Lowry L. and Richard W. Meyers. *갈등해소와 상담*. 전해룡 역. 서울: 두란노, 2002.
- Saucy, Robert L.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김기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Snyder, Howard A.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 \_\_\_\_\_. *21세기 교회의 전망*. 김기찬, 박이경 역. 서울: 아가페, 1993.
- Stanley, Andy and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이중순 역. 서울: 디모데, 2006.

- Stenbron, Melvin J. *목회 혼자할 수 있는가?*. 서병채, 김종태 역. 서울: 평신도목회자연연구소, 1998.
- \_\_\_\_\_. *평신도 목회자를 깨워라*. 홍용표 역. 서울: 이레서원, 2000.
- Stevens, R. Paul.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 Stott, John. *로마서 강해*. 정옥배 역.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6.
- Sweet, Leonard.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 Tan, Siang-Yang, *평신도 상담자*. 미션월드라이브러리 편집부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7.
- Warren, Rick.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역. 서울: 디모테, 2003.

### 3. 외국서적

- Collins, Gary R. *Christian Coaching*. Colorado Springs: NavPress, 2001.
- Laing, Ronald D. *The Politics of the Family*. New York: Vintage Books, 1972.
- Tan, Siang-Yang.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hristian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Vita of  
Jae Hwa Jung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Seoul

Personal Data:

Birthdate: July 05 67  
 Marital Status: Married to Eunsil Kim  
 with 3 children, Hyewon, Yunwoo, and  
 Hyemin  
 Home Address: 69 Jeo-dong 2ga Jung-gu, Seoul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Tonghap)  
 Ordained: April 18, 2000

Education:

B. A.: Geimyung University, Daegu, 1993  
 M. 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8  
 Th. M. in Min.: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7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4

Personal Experience:

1/2007 to present: Assistant Pastor  
 of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Seoul  
 1/2000 to 12/2006: Assistant Pastor  
 of Juan Presbyterian Church, Incheon